

시편 2

51-100

시편 2 51~100

2018년 12월 16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시편 2

51-100

작성

시편 51:1~19 | 정한조

시편 52:1~9 | 정한조

시편 53:1~6 | 정인철

시편 54:1~7 | 이동규

시편 55:1~23 | 정한조

시편 56:1~13 | 정한조

시편 57:1~11 | 정한조

시편 58:1~11 | 정한조

시편 59:1~17 | 이성실

시편 60:1~12 | 정재규

시편 61:1~8 | 정한조

시편 62:1~12 | 정한조

시편 63:1~11 | 정한조

시편 64:1~10 | 정한조

시편 65:1~13 | 송호욱

시편 66:1~20 | 박성호

시편 67:1~7 | 정한조

시편 68:1~18 | 정한조

시편 68:19~35 | 정한조

시편 69:1~18 | 정한조

시편 69:19~36 | 김광욱

시편 70:1~5 | 김현준

시편 71:1~24 | 정한조

시편 72:1~20 | 정한조

시편 73:1~28 | 정한조

시편 74:1~23 | 정한조

시편 75:1~10 | 유석정

시편 76:1~12 | 이영란

시편 77:1~20 | 정한조

시편 78:1~8 | 정인철

시편 78:9~42 | 강요섭

시편 78:43~72 | 이광희

시편 79:1~13 | 이창호

시편 80:1~19 | 임용완

시편 81:1~16 | 정한조

시편 82:1~8 | 정한조

시편 83:1~18 | 정한조

시편 84:1~12 | 정한조

시편 85:1~13 | 이성실

시편 86:1~17 | 이동규

시편 87:1~7 | 정한조

시편 88:1~18 | 정한조

시편 89:1~18 | 정한조

시편 89:19~37 | 정한조

시편 89:38~52 | 김대인

시편 90:1~17 | 김신년

시편 91:1~16 | 임용완

시편 92:1~15 | 백정수

시편 93:1~5 | 송호욱

시편 94:1~23 | 유석정

시편 95:1~11 | 최영민

시편 96:1~13 | 박성호

시편 97:1~12 | 정한조

시편 98:1~9 | 정한조

시편 99:1~9 | 정한조

시편 100:1~5 | 정한조



1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1~19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

리이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
 이다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께서 구
 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
 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용서받음에의 기원(1~9)

시편에는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불리는 것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
 편 51의 표제를 참고하면, 이 시편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였던
 ‘밧세바 사건’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에 깊고도 처절하게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죄악’(1), ‘죄
 악’, ‘죄’(2), ‘죄과’, ‘죄’(3), ‘범죄’, ‘악을 행함’(4) 등 각 절마

다 죄와 관련된 단어를 말하며 회개합니다.

특히 1절의 ‘죄악(죄사)’은 ‘반역’, ‘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사건을 저지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며,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대용품’입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의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탄’, ‘나 자신’,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이 선택에서 하나님 대신 대용품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 종류의 죄가 양산됩니다. 이것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탄의 말이나’에서 후자를 선택하여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르게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엄청난 결과까지 간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에 대한 인

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머니 역시 죄인이고, 다윗은 그 죄인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서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밋세바 사건 이전에 주색잡기에 빠져 인생을 탕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여서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암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품안에 품고 잠을 잤습니다. 요즘말로 하면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양이나 소 중에 한 마리를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들던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리(삼하12:5)”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이 군복을 입혀주었지만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며 벗고서 싸우러 나갔고, 싸우러 갈 때에 그

의 손에는 창이나 칼이 쥐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매와 돌멩이 다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를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손을 대지 않았고, 심지어 블레셋까지 피난을 갔다가 미친 체하며 나와서도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34:8)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살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데, 그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를 짓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 죄를 지을 때에 느낌이 이상해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데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모습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편안한 원초적 본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참회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거룩한 삶에의 기원(10~19)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용서를 구한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0). 다윗은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을 “정한 마음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와 ‘창조해 주십시오’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고치

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또는 많이 마모가 되었을 때에 복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창조하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자기 속에는 정한 모습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만을 순수하고도 온전하게 섬기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외면당해도 속이 상하고, 짓눌림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또한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만 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겼던 사울에게서 주의 성령이 떠나고 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 괴롭게 하고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 두고서,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면, 수금을 타면 왕이 괜찮아질 것입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두려워해야 하는

데, 왕이 신하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서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것은, 사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아는 다윗이,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자에게 하는 큰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라고 합니다. 목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충분히 짐작되므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도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참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16~17)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이거나 곡식을 곱게 갈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과 곡식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인 짐승처럼 죽어야 하고, 곡식처럼 갈아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가 약 50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에서 빠져나와 자기를 위해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스스로 갇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한동안 생명수가 아니라 독수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범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자기 웅덩이에 갇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생명수가 아니라 독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웅덩이 빠져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역설을 맛보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웅덩이에 빠진 날’이 아니라 생명의 시냇물을 마시며, 흘려보내는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어처구니없는 삶에 놀라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편없는 삶에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회개가 우리에게도 메아리쳐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확인했고, 자기 속에는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함에 대해서도 깨우침을 받았습시다. 또한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의 성령께서 떠나가심에 대해서도 확인했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림보다 상한 심령을 제물로 드림을 더 기뻐하시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는 것을 깨우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러한 일을 직접 겪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임으로 다윗이 깨달았던 것들을 동일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를 매일매일 자기 웅덩이로 만들어 그 속에만 머물다가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시냇물을 먹음으로 은혜와 생명의 통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이 이처럼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가장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 않으심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3. 하나님께서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웅덩이에 자신을 가두어 썩어가지 않고,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며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시편 52:1~9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1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 네 혀가 심한 악을 꺾어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4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어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도다 (셀라) 6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도다 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도다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악인과 그의 종말(1~5)

오늘 본문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여,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찬양대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인데, 다윗이 지은 시를 노래로 만들어 다수의 찬양대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 시편이 공동체의 노래,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는 사무엘상 22장 6~2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은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일으킬 만큼 혈안이었습니다. 다윗은 들로 산으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환난당한 사람들, 빛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 정도가 함께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잡히지 않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을 할 때에도 나에게 귀땀을 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며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 때에 에돔 사람 도엑이 나서서 보고합니다. 도엑은 사울의 신하이자 ‘목자장_왕궁 가축 관리 수장’이었는데, 어떻게 에돔 사람이 그런 위치까지 올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과 다니엘이 애굽과 바벨론 제국에서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것처럼, 사울에게 아주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제가 다윗이 늙 지방에서 제사

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놉 지방의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야단을 쳤습니다. “왜 당신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 하는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죽이도록 매복하게 하였는가?”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답변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서 제사 다윗 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나님께 여쭙었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이 종의 집안에 아무런 허물을 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에 분노가 치민 사울은 ‘너의 온 집안이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기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에 왕의 명령을 받은 도역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날에 제사장의 웃인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울은 놉 지방까지

가서 주민들도 모두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민 속에는 남자와 여자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도 있었고, 심지어 젖먹이도 있었었습니다. 소 떼와 나귀 떼, 양 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때에 다윗은 제사장의 집안 이 몰살을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 일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1)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포악한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도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악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 ‘강한 자’, ‘위대한 자’입니다. 본래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을 말할 때에, “그 사람 진짜로 유명하지!”라고 반어법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역은 사울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며, 꺼리고 있을 때에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역에 대해서 경멸적인 호칭과 함께, 수사어문문을 사용하여 그는 자신이 가진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자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포악한 도엑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네 혀가 심한 악을 꺾어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은 도엑의 말이 악한 흥기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고,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치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좋아한다고 합니다.

도엑이 사울에게 한 말인, 다윗이 놉 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빵과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성경은 담담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엑의 포악한 심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국사를 내팽개치고서라도 잡아서 죽여야 하는 존재란 것을 말입니다. 도엑은 사울이 그토록 잡아들이기

를 원하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자신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자질로 제사장만 85명이 죽음 당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수가 많아집니다. 제사장 1명당 부인과 자녀 2명만 해도, 최소한 3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만큼 흥기였습니다.

좋은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고, 악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포악한 사람인 도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빠시리로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엑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인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땅에서도 뿌리째 뽑을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 심긴 풀이 아무리 푸르게 보이고, 생명력이 강하게 보여도, 그것을 뿌리째 뽑아서 피약별 아래 두면, 이내 어떻게 변해가는 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주 짧은 순간에는 뿌리가 뽑혀도 여전히 푸르고, 생명력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급속하게 말라 죽습니다.

도액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순간 고자질의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누렸던 기간은 긴 안목에서 보면 뿌리가 뽑힌 풀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포악한 사람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의인과 그의 종말(6~9)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6~7)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하다

도액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출세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손해 보면서도 의롭게 살려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는 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종말을 보고서 비웃게 될 것입니다. 두 비웃음

중,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는 끝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재물이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인생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에 다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어 의인의 삶에 대한 증언입니다.

(8~9)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¹⁾

도엑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함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는 몰라도, 그의 고자질은 최소한 수백 명의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족을 죽이는 흥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 은혜의 시냇가에서 벗어나, 자기 웅덩이 자

1) 이 말씀에 대한 가장 바르고도 좋은 해석은 시편 1편이다.

(시1:1~6)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니

기 생명을 가두는 행위도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성경에서 사라졌고, 3,0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우리에게 ‘포악한 자’로만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도액과 같이 포악한 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웅덩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도액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도역이 사울에게 이룬 고자질이 놓 지방에 살았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 심지어 어린아이와 젖먹이 까지 죽임을 당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도역이 한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고관'으로 기억하지 않고, '포악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혹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세속적인 욕망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시고, 손해를 볼지라도 의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자기 웅덩이 빠트려 썩는 인생, 악취 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의 삶을 사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전해 들은 말이나, 전한 말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2. 포악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흥기와 같아서, 속임의 말과 거짓말을 사랑하고, 아주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쉽습니다. 나의 언어생활에 교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도액은 당시에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지금은 '포악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나는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도액의 길이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3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에

시편 53:1~6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흠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스길은 어제 언급된 바와 같이 교훈, 곧 실용적인 지혜가 담긴 가르침 또는 명상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찬양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할랏은 곡조나 악기 이름을 나

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곡조나 악기가 어떤 분위기였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할랏이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질병이나 슬픔 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과 애원이 담긴 곡조나 악기로 추정이 됩니다. 정리하면, 시편 53편의 표제는 인도를 따라 슬픔과 애원이 담긴 곡조나 악기에 맞춘 다윗의 교훈시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14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시편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시가 시편에 포함되기 전에 동일한 시의 각기 다른 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두 시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3편은 계속해서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14편은 엘로힘과 함께 곳곳에서 “야훼”, 곧 여호와라는 호칭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뿐 아니라 두 시편은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4편 5~6절과 53편 5절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내용상의 차이로 두 시편을 살펴본다면, 14편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대신, 53편은 악인에게 임할 두려움을 보다 상세히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무신론자(1~3)

-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와 그의 어리석음의 성격에 관한 주제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본문의 ‘어리석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시편 14편에 대한 새벽묵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 인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이, 다윗의 권위를 무시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실 완전타락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능력이 결여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완전타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부정함여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단수가 아니라, 그들,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복수형을 넘어 그 수가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2~3)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한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고 계십니다. 굽어살핀다는 표현은 위에서 내려다보신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악과 그에 대한 심판(4~5)

시인은 4절에서 주어를 어리석은 자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로 고쳐 부릅니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개역개정성경의 “무지하나”를 공동번역은 “언제나 깨달으랴”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악을 행하는 것은 정신적이나 지적인 결여보다는 깨달음의 결핍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즐기는 삶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먹는 양식처럼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저 무의미하다했던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흡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두려움도 없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던 곳인데, 그 곳에 무서운 공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포는 악인들에게 임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참혹합니다. 그 참혹함은 전쟁에 비유되며 뼈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흡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양식처럼 먹어 치우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패배를 당해 그들의 시체가 땅에 버려지게 되며, 결국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없다고 말하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간구(6)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간구로 시를 마칩니다.

(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아굽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시온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돌이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구원이 임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평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각자가 만든 옹덩이에 나의 생명을 가둔 채,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는 않지만, 실상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어느새,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을 독수로 오염시키게 되고, 이 독수는 다른 사람들을 양식처럼 잡아먹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 힘을 써야 함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선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

지고 내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남을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아감으로써 나를 포함한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 학교, 만나는 모든 사람의 미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인을 통해 다시금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과 용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아감을 통해 먼저는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공간과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새롭게 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특징을 묵상해 봅시다.
2.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3.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자로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묵상해 봅시다.
4.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묵상해 봅시다.

4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

시편 54:1~7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이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 하나님이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54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마스길’은 ‘교훈’으로, 교훈 사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기도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의 배경은 십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로,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1~2)

(1~2) 하나님이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먼저 두 번이나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릅니다. 시편에서 개인시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와 같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이여”라는 이 부름 속에 이미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새벽기도회 시간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생생한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노 권사님들의 기도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탄식처럼 터져 나오는 “아버지”라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말이 없어도 영혼의 호흡을 하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아버지”라는 노 권사님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미 그 기도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얼굴의 노 권사님들의 애절함과 간절함, 아픔과 눈물, 사랑과 미움, 인내와 순종, 그리움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 어린 간절한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여”, “아버지”라는 부름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이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녀들이 애절한 눈빛으로 “아빠”, “아

버지”라고 부를 때 그 부름 속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고, 부모 된 자가 자녀의 마음과 바람을 알듯이, “하나님이여”, “아버지”라는 부름 속에 이미 하나님과의 애뜻한 관계가 있고, 응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3)

(3) 낮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이어 다윗은 낮선 자들이 일어나 자기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한다고 토로합니다. 새번역성경은 “무법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고, 폭력배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린다.”고 번역합니다. 사울과 그 일당들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없다고 여깁니다.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지막이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부정,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이 죽음 이후 영원의 결과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 되시는 생명과 영광의 영원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4~7)

다윗은 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고백합니다. 특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진술과 고백이라 더욱 설득력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십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했을 때, 사울은 정예 군사 3천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던 하길라 산 길가에 정예병 3,000명을 풀어 길목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의 동향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특공대를 거느리고 사울의 천막으로 잠입해 자고 있던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

병을 가지고 나와 건너편 산꼭대기에서 사울을 깨웁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 가는 동안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삼상 26:12) 그 일이 가능했다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사람을 통해 때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염없이 너그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 악을 행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자까지 붙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능력, 전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도움과 생명이며,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두렵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와 순종을 조금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아직 코끝에 호흡이 있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

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장 작은 자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기 전에, 자신이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지금 삶의 퇴로가 없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홀함에 대해, 우리의 의심에 대해, 우리의 교만에 대해, 우리의 염려와 걱정애 대해, 우리의 감사치 못함에 대해, 스스로 큰 자라 여긴 것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응답을 삼고, 전부를 삼고 부르시고 택하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으신 그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소리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이여”라고 불러봅시다.
2.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시다.
3.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십니까?
4. 우리가 조금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5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1~23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이며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2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3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
 었도다 6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되다 7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되다 (셀라) 8 내
 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9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10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
 과 재난이 있으며 11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12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
 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
 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 그는 곧 너로
 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 우리가 같이 재미
 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15 사망
 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

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 나를 대적
 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19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
 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20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
 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 하
 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
 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난 때의 호소(1~8)

시편 55편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다윗이 지은 이 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은 7편 (4, 6, 54, 55, 61, 67, 76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악기에 맞춘 노래는 진중하며 무거운 느낌을 주는 연주를 따라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제에 다른 내용이 없어서, 이 시편이 어떤 사건 뒤에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

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의 오랜 책사(策士)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은 것이 그 배경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와 “숨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요청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귀를
기울이다’는 ‘귀를 펴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에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귀 뒤를 손으로 앞으로 내미는 것입
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귀를 내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
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숨다’는
‘존재(몸)를 감추다’와 함께 ‘생각을 감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표현하
는 말입니다.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
신을 뵈히 쳐다보고 계시면서도 모른 채 하시는 것, 자신이 간
구를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구합니다.

(2)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내밀어) 달라고 요청했던 다윗
은 이번에는 ‘몸을 굽혀(내밀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3)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고통의 진원지라고 합니다. ‘소리’는 ‘큰 소리’ 또는 ‘함성’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많은 군인들의 소리에 놀림을 많이 겪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압제’는 ‘무거운 것이 짓눌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놀림과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4~5)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히 아파하다’는 ‘뒤틀다’, ‘빙빙 돌다’는 의미인데, 특히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에 온 힘을 다하듯이, 다윗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온 몸을 뒤틀릴 정도로 두려웠고, 떨렸던 것입니다.

(6~8)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온 삶이 짓눌리면, 길에 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거나, 공중을 나는 새만 봐도 부럽게 여겨집니다. 다윗도 자신이 새라면,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무르며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리고 ‘경작되지 않고 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또한 ‘폭풍’은 ‘직선으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라고 한다면, ‘광풍’은 ‘곡선으로 불어오는 세찬 바람’입니다. 둘 다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며 다가오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사람들이 없는 광야, 그런 바람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피난처로 가고 싶은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배신의 고통(9~15)

다윗은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고발합니다.

(9~11)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다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등 7 가지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 ‘성 중’라고 합니다. 그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가 ‘악인들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여(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자신은 종이 되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멸하소서’의 문자적인 뜻이 ‘삼키다’, ‘들이키다’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다단, 온 등의 사람들과 그들의 집을 비롯한 재산을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을 때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는데, 의외로 반전(反轉)이 느껴집니다.

(12)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기를 공격해 오는 원수가 진짜로 원수 같은 존재였으면 참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잘났다고 자랑질하는 원수였으면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숨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약간 의아합니다. 다음 구절은 머리에 강하게 한 대 맞은 느낌을 줍니다.

(13~14)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그것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하는데, 마치 스릴러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공(다윗)이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온몸을 뒤틀 정도로 격한 고통이 있는데, 그 강도가 날로 더해집니다. 공중을 나는 비둘기가 너무 부럽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살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고통을 준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중에서 친구입니다. ‘나의 동료’의 문자적인 뜻은 ‘같은 줄’입니다. 과일가게 상인이 과일을 팔 때에 같은 가격

의 것은 한 줄로 정리해 놓듯이, 너와 나는 같은 가격, 똑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친구’는 ‘가르치다’, ‘배우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문위원,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흔한 용어로 하면 ‘베프_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표현하면, 화요일 저녁마다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을 함께 배우며 감동을 나누었고, 토요일이면 관리봉사하러 나와서 열심히 청소했고, 주일이면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봉사 등으로 섬김이 필요한 곳이면 어떤 일이든 함께 봉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선봉장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사(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해 온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원의 확신(16~23)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6~18)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번(저녁, 아침, 정오_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함)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아히도벨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모략을 말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압살롬이 뜬금없이 다윗의 사람인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고,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22~23)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며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합니다. ‘맡기다’의 문자적인 뜻은 ‘던지다’입니다. 짐을 던지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짐을 던지지 못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장 큰 자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큰 자일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에 영원히 크신 주님께서 그를 크게 해 주셨고,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자기 스스로를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처럼 큰 자로 여기게 하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작은 자로 여겨,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김으로 크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만들었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심지어, 너라고 부를 수 있었던 동료요, 친구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섬겼던 사람이 그러하였던 것에 놀라움을 느끼며,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혹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삶에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크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처럼 비둘기가 부럽고, 사람들을 떠나 광야에 머물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2. 다윗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 ‘친구’, ‘가까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떻게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3. 다윗은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까? 혹은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처럼 스스로를 큰 자로 여겨 패망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처럼 작은 자로 여겨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크게 해 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6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1~13

[다윗의 막담 시, 요넳 열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1 하나님이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7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어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8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가 9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2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가

잡힌 자의 기도(1~7)

시편 전체에서 ‘믹담’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16편과 56~60편까지 5편, 모두 6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믹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추론됩니다. ‘믹담’이라는 단어가 ‘새기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겨 이 시가 ‘돌비와 같은 곳에 새긴 시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서, ‘황금의 시편’이라는 의미라고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대속하다’는 뜻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서, ‘대속의 시편’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성경>에도 돌비에 새겨진 시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믹담’의 의미가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든, ‘황금의 시편’이든, ‘대속의 시편’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의미는 가치 있는 시편,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가치 있고 중요했기 때문에 돌비에 새겼을 것이고, 황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요낫 엘렘 르호킴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표현인데 ‘먼 느티나무 위의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묘사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멀리 떨어져 외롭고 처량하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가곡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라는 노래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

르면 그 사람은 참 처량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일제 강점기에 있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온 민족이 다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다윗 개인의 경험이 국가의 경험이 되고, 개인의 처량함이 민족의 우울함으로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란 것은 사무엘 상 21장 10~15절이 배경입니다. 시편 34편도 동일한 배경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목숨을 부지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망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행한 일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순간 다윗은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성의 대문에 아무렇게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행히 아기스도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느냐?”며 격노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1~2)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켜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켜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부터 올립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원수가 (하루)종일 삼키려 한다’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한 순간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 ‘적의를 강하게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따라 다니며 지켜본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가 나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아마 신경증 증세가 나타나 몸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따라다며 감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 놀림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감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흠을 잡아서 세상에 다 알리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더욱 놀림은 클 것이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찾은 해결방법이 3절에 나타납니다.

(3)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여! 두렵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를 100번 외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도망가거나 두려운 감정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때에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 빠

지게 되었을 때에, 팔 다리를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처럼 되어서, 몸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물가로 나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심한 허우적거림이 힘을 더 빠지게 만들어서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차라리 가만히 누워 있다가 튜브나 구조원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삶 가운데 근심거리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심거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구절에서 특이한 것은 다윗은 ‘말씀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는 것은 빨리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빨리 와 닿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에서는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말 그대로 말 뿐인, 빈 말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품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신을 위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자신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5~6)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며, ‘내 말을 곡해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의 대부분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자기 편의대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 실낙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이 흘

어지게 된 것도 말 때문임은 의미심장합니다. 말이 곡해되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가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부러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언어와 인간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를 나누는 것도 말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람에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8~13)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다양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주시기를 요청하며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8~9)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니이다

다윗이 지금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처절한 상황에 있지만,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편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기를 잠잠히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서약한 대로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3)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직까지 삶은 처절하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표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표제가 있는 것들은 시인 다윗이 모두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은 대부분 다윗이 도망 다니고, 배신당하는 등 고통 당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다윗이 겪은 고통의 사건이 노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 자리마다에서 지극히 작은 자신을 발견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까지 바른 신앙인으로 높여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덜 겪기를, 가능하면 고통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확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햇볕만 내리 쬐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해도 비바람도 맞게 하시고, 눈보라도 통과하게 하시며, 때로는 큰 병에 담아도 다 담을 수 없을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을 흘리게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겨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한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로부터 쫓겨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 자신이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까지 찾아가 몸을 숨겨야 하는 서글픈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를 보호할 것이 없는 나무 위에서 구슬프게 울어대야 하는 비둘기가 자신의 신세와 같이 여겨질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니고, 눈물병이 흘러넘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자신이 온전히 의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자신을 건져 올려 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더욱 또렷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오만함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멀리 떨어진 나무에 앉은 비둘기 같다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언제였으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2.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때는 언제였습니까?
3.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눈물이 지금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1~11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1 하나님이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 하나님이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동굴에서 드리는 기도(1~5)

표제의 ‘믹담시’는 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돌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 ‘대속의 시편’ 등의 의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돌비와 같은 곳에 새긴 시편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을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돌비에 새겼을 것이고, 황금과 같이 여겼을 것이고,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음을 움직이는 시를 만나면, 예쁘게 다시 써서 벽에 붙여 놓기도 하고, 코팅을 해서 책 속에 깨워 두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시가 내게 다른 시와 다른 의미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것처럼 믹담시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표현인데, 알다스헛 운율은 시편에 57편, 58편, 59편, 75편 등 모두 4편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멀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힘들고도 처량한 처지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무너뜨리지도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곡조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해 다닐 때 숨었던 동굴 중에서 성경에 두 개의 굴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의 아들람 지역의 굴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광야의 굴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상황이 더 절박

했던, 그러면서도 신앙인의 위엄을 잃지 않았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울이 자신의 신하이자 사위를 잡겠다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서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을 뽑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컸었다는 것의 반증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뒤를 보기 위해서(히. 발을 가리러), 그 많은 굴 중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이면, 사울은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로, 패역한 군주로 보았더라도, 다윗은 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군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의 시작은 56편의 첫머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과 시편 57편이 닮은 점이 많다고 하여,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56편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 지방까지 갔는데 거기도 있을만한 곳 되지 못함을 확인하고, 미친척하여 성문에 글자를 아무렇게 글자를 굵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도망 나와야 했던 처량함을 노래한 시편이라면, 57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서 도망 나와서 아둘람 지역의 굴에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까지 굴에서 굴로 전전해야 하

는 서글픔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두 편이 모두 집이 아닌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때를 노래했기에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1)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처량하고도 서글픈 시절을 보내면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이여(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윗은 평안함 가운데 거할 때에도, 또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은 자신의 전 존재와 온 삶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삶의 어려운 부분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의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휘몰아칠 때에도 섬의 큰 바위 틈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 새끼새는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다윗도 영원한 주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_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의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에, 그 어떤 악의 세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 자신의 삶이 고장 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고쳐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진리_진실’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무조건적 품어 주심과 긍휼, 격려)이 필요하고, 바른 길을 걸으려는 자신을 붙잡아주셔서 바른 길을 계속 걷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들이 득실대는 한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합니다. 사자는 고양이와 동물 중에서 가장 용
맹하며 먹이 사슬에서도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들소나 기
린, 하마, 코뿔소, 코끼리 등은 사자보다 덩치도 크고 더 힘도
 셉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자기보다 큰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의 무리를 ‘프라이드(pride)’라고 하는데, 한 프라이드에
 는 수사자 2~3마리와 암사자 10마리 내외, 그리고 새끼사자들
 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냥을 할 때에 한 무리를 형성하는
 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다윗은 자신
 이 으르렁대는 사자들 무리에 있는 얼룩말이나 가젤 같다고 고
 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화살과 칼은 끊임없이 자신
 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거나 절망하
 지 않습니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대적들이 아

나라, 그 위에 계신 분, 하늘 위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돕니다. 다윗은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참 커보입니다. 다윗은 표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움만이 가득합니다. 위를 보아도 금방 손이 닿을 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장엄한 대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찬양(6~11)

다윗이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히브리어성경으로는 이 구절에서 ‘그물’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국사를 내팽개치고서라도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물이나 웅덩이(함정)는 사람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짐승은 늘 다니던 길로 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거기에 그물을 설치하거나,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짐승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자기들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7~8)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깟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를 잡으려 다니는 사울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다고 고백합니다. ‘확정되다’의 문자적인 뜻은 ‘고정시키다’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을 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벽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서 새벽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벽’은 밤의 끝을 뜻합니다. 밤은 사람이 자는 시간이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는 밤에 역사하시는데, 다윗은 아침의 시작인 새벽에 일어나 밤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여 은혜를 누리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9~10)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상황이 바뀐 것은 없었지만이라도 모든 대적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 다니면서도 이런 시편을 지어 노래한 것은 참 크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있는 굴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겂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떨어져서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삼상24:14)”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과 동일시할 정도로 낮은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다윗처럼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이 작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작은 자를 크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주군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임금으로 언제나 존중해 주었지만, 사울은 사위인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껴, 교묘한 말의 그물을 던지고, 온갖 모략의 함정을 파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다고 생각되었을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의 과정을 겪고 싶지 않지만, 그의 믿음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아주 작고, 또 때로는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리가 다윗이 숨었던 동굴과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별빛이 쏟아지는 광활한 대지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의 인생길에서, 삶의 자리가 다윗처럼 동굴 속에 있다고 여겼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 동굴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2.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았다가 낭패를 겪었거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상황을 이겨낸 적이 있습니까?
3. 다윗은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고정시키고), 새벽을 깨울 것이라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새벽을 깨우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가 하찮은 존재와 여겨질지라도 크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시편 58:1~11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1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인자들이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2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3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4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6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7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8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9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10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불의한 재판관(1~5)

시편 58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입니다. ‘믹담시’는 ‘돌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 ‘대속의 시편’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는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성경>인데, 거기에 ‘믹담’을 ‘돌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믹담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 시편, 가치가 있게 여겨진 시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표현인데, 알다스헛 운율은 시편에 57~59편까지 3편과 75편 등 모두 4편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떨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불의하게 재판하는 통치자들을 심판해주기를 요청하는 시편의 표제에는 배경이 되는 시기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악인들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라지고, 그릇된 재판이 판을 치던 때에 지어진 것을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8편은 109편, 137편과 더불어 ‘저주시’로 불립니다.

- (1)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든 어찌 잠잠하나 인자들이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든 어찌 잠잠하나

히브리어성경은 “어찌 잠잠하냐?”부터 시작됩니다. 그 의미는 잠잠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에 잠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치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약한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할 때에도 입을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2)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공의를 세우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할 통치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일삼을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바르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듯이,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바르게,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온전할수록 더 온전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찰흙(지점토)으로 강아지나 고양이틀 만들 때도 먼저 그 아이 속에 어떤 모습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들지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즉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들지를 생각해야 하고, 자세도 앉아 있는 모습을 만들지, 서 있는 모습을 만들지 아니면 누워 있는 모습으로 만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던 것은, 그들 속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속이 바르지 못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행동)을 고치려면, 그전에 우리의 속(심보)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139:23~24)”. 다윗은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3)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른 길에서 벗어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결길이었다고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에, ‘모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모태 악인’, ‘모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태 죄인’ 것

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 사건 후에 참회하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0~12)”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5)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다윗은 악인을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뱀이 아니라 독을 품고 있는 독사입니다. 더 나아가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나, 술객의 요술을 따르지 않는 독사입니다.

실제로 본적은 없지만, <알라딘의 마술램프>나 <신밧드의 모험> 같은 중동을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마술사가 피리를 불면 항아리에서 코브라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술사가 피리를 불어 머리를 내밀었는데, 그쳐

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향아리에서 나와 돌아다닙니다. 마술사라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코브라는 그 피리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듣지 않는지, 향아리 속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다면, 물린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올바른 재판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피리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코브라)와 같다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심판(6~11)

다윗은 이러한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당시의 관습과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요청합니다. 다윗은 여섯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6~9) 하나님이며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첫째, 악한 통치자들의 치아를 꺾으시되 젊은 사자의 어금

니를 꺾듯 해 달라고 합니다.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가 아니라 충분히 사냥이 가능한 혈기 왕성한 사자입니다. 사자는 호랑이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동물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것과 홀로 다니는 것도 다르지만, 서로 싸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호랑이는 싸울 때에 먼저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발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싸울 때에 주먹으로 치듯이 호랑이는 발로 칩니다. 반면에 사자는 발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발로는 상대를 누른 후에 목을 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자에게 이빨이 없다면, 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는 것이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그 사자는 하이에나도, 들개도 이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사자의 어금니를 빼듯이, 그들의 힘을 빼 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중동 지역에는 우기에는 강이나 시내가 되지만,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와디(wadi)’라고 합니다. 우기 때에는 많은 물이 흘러가지만, 비가 그치면 그 물이 이내 사라지고 말듯이, 지금은 통치자들의 악한 행위가 우기에 물이 흘러가듯이 가득하지만, 이내 건기가 되어서 물이 사라지듯이, 악한 통치, 바르지 못한 재판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 같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화살을 목적지까지 잘 날리기 위해서는 바르게 겨누어야 하겠지만 만약 화살이 꺾여 있다면 조준하는 곳으로 날아가지 않

을 것입니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꺾인 화살이라 과녁에 박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행위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끈적끈적한 자국을 남기는 것을 보고서, 그것은 달팽이가 자신의 몸을 녹여가며 소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몸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지막에는 다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그렇게 녹아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달을 채우지 못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제 달을 다 채우기 못하고 태어난 아기를 ‘칠삭둥이’, ‘팔삭둥이’ 등의 표현을 합니다. 1~2달 일찍 태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산(死産)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사산한 아기와 같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불이 붙기 전에 강한 바람이 불려 꺼지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지으려면 먼저 불을 지피야 합니다. 그런데 불을 지피려고 할 때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게 한다면, 밥을 지을 수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성냥에 불을 붙여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성냥을 켜는 순간에 누군가가 “훅!”라고 바람을 분다면, 성냥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꺼지는 성냥불처럼 악한 통치자들이 물러가기를 요청합니다.

(10~11)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하다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의한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통치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약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재판을 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오만한 행위를 자행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큰 자로 여겼기 때문이고, 자기 위에 자기를 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면 얼마나 망신을 당하게 되는지 수년 동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면 악한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우리가 스스로 큰 자로 여겨, 자기만 위하는 오만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로 여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께서 크게 여겨주심을 확인하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곳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갖기 위해서 동분서주 합니다. 바라옵나니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로 여기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겨 우리를 크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 만난 통치자(상사) 중에서 공의롭고 바른 분별력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어떤 모습이 그러하였습니까?
2. 다윗은 여섯 가지로 불의한 통치자가 꺾이기를 비유로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불의한 통치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 우리 사회, 내가 속한 곳(가정, 일터 등)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계심을 의식하며,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면초가 (四面楚歌)

시편 59:1~17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1 나의 하나님이어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엮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5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셀라) 6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7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9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1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흠으시고 낮추소서 12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14 그들에게 저 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17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입니다. ‘믹담시’는 ‘돌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 ‘대속의 시편’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는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성경>인데, 거기에 ‘믹담’을 ‘돌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믹담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 시편, 가치가 있게 여겨진 시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표현인데, 알다스헛 운율은 시편에 57~59편까지 세 편에 75편을 더하여 모두 네 편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멸하지 마소서. 파괴 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표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입니다. 이 상황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는 사울도 다윗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결국 자기 딸 미갈을 정략적으로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인기는 오히려 다윗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갔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칠 줄 모르는 인기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표제에서 보여주듯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의인, 다수의 악인(1~8)

다윗은 홀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다윗을 죽이려는 무리들은 다수의 사울의 군대입니다.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은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뿐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었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두 번 기도의 흥내는 낼 수 있지만 끝까지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면, 위대한 다윗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역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섭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별벌 떨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조롱거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6~8)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리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세상에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원치 않는 소리를 들어도 그 앞에서 강한 자의 비위를 맞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잠시 눈을 감고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의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거리를 배회하는 들개로 묘사합니다. 들개처럼 울면서 성을 두루 다니며 악을 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 승리(9~17)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9~10)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강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강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의 비위를 맞추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힘의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

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대적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흘으시고 낮추소서

(잠30:8~9) ...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아굴의 잠언 중 한 구절입니다. 아굴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덕담처럼 이야기하듯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다. 왜냐하면 너무 부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부는 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죽이지는 말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사라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평안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12~14)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대적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입술로 내뱉은
말과 그들의 행위로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어제 뿌린 씨앗의 열매라는 것입니
다.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
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16~17)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
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때는 여전히 문제가 해
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해 고
통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순간에 하나님
을 향한 믿음은 가장 굳건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분께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워 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분께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손을 내어드리고, 그 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한 날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누군가의 모함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2. 만일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때의 고난이 현재에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3.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지만, 현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을 때 믿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4. 세상의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시편 60:1~12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리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

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홀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3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대 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대 (셀라) 5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6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8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9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대 11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십이로다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간구(1~5)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돏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돏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쓴 목적과 배경은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고, ‘교훈하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듯 백성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어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주었을 믹담시입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돏에 맞춘 노래’라고 적고 있는데, ‘수산에돏’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음악 용어로 ‘수산’은 ‘백합’을 의미하고, ‘에돏’은 ‘증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에돏’은 ‘백합화의 증거’라는 말일 텐데, 이는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증거의 노래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돏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아람 땅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고, 아람소바는 중부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아람의 소왕국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죽인 사건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북방 정벌 전쟁이나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승리 이전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1절에 연속하여 사용된 4개의 동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동사는 ‘버렸다, 흠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소서’입니다. 다윗은 지금 처한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대한 죄로 인해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크셨던지 지진으로 온 땅을 갈라놓을 만큼 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흠으셨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님의 진노에 마치 술을 마신 사람이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다고 다윗은 느꼈습니다.

(2~3)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틈을 메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절대 없음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서 ‘멈춤’이 중요하고, ‘돌아봄’이 중요합니다. 승리의 기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아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라 생각하는 순간 역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아야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채우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위기만을 묵상하지 않고, 그 너머를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손길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또 민족을 자세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을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4~5, 새번역)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활을 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깃발을 흔들어 주시고 또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6~8)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이런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8)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NIV성경이나 새번역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두 번역 다 ‘하나님 말씀의 위엄과 신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과 약속에 신실하신데,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뛰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기뻐하다’라는 의미와 ‘펼쩍펼쩍 뛰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펼쩍펼쩍 뛰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기꺼이 큰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 돕기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펼쩍펼쩍 펼 정도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단 서쪽과 동쪽의 대표적인 지명인 세겜과 숙

곳을 언급하시며, 나누고 측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겜과 속 곳은 요단 서쪽과 동쪽을 대표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요단 동쪽 땅 전부를 의미하는 ‘길르앗, 므낫세’와 요단 서쪽 땅 전부를 가리키는 ‘에브라임, 유다’를 언급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투구로 삼고, 유다를 통치 지팡이 즉 지휘봉으로 삼겠다고 하시며 거룩한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적국인 모압, 에돔, 블레셋을 언급하시며 이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8, 새번역)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하나님께 대한 호소와 결단(9~12)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질문을 던집니다.

(9)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벽을 갖춘 것 같은 애덤을 무너 뜨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그 답을 압니다. 이 질문은 그 답을 더욱 강조 하기 위해 던진 수사의문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답합니다.

(10~12, 새번역)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인생은 의지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새 힘과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의 고백과 실천이 되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펄쩍펄쩍 뛰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매순간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또 세상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일으키시며 참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참된 의지가 되는 주님께 고정하고 감정이 아니라 온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시는 하루이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평안의 길을 지날 때도 있고, 마치 외나 무다리에 서 있는 것처럼 위기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가 던 길을 멈추어 지난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고 헤아려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기쁨 중이나 어려움 중에 능력이 없는 나를 또 세상을 부여잡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때든 하나님만 살아갈 목적과 의미와 매일의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만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이 또 앞으로 걸어야 할 그 길이 주님을 향해 바른 방향을 맞춘 길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처럼 절박함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 잠시 가던 길을 한번 멈추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삶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3.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도우시는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펄쩍펄쩍 뿜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4. 나는 오늘 하루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어떤 것도 해결 할 능력이 없는 나입니까? 물질, 명예, 지식,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결단해 보십시오.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시편 61:1~8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5 주 하나님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언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땅 끝에서 부르짖음(1~4)

오늘 시편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일곱 편(4, 6, 54, 55, 61, 67, 76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대략 진중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주는 연주를 따라서 불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이올린의 네 줄 중, 가장 두꺼워 낮은 소리를 내는 ‘G선’ 하나로 연주하는 ‘G선상의 아리아’처럼 장중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를 부은 시편의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표제에는 배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6절의 왕권이 계속되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있었던 처절했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권을 잃고서 황급히, 그리고 황망히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동편 마하나임에서 피해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1) 하나님이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어’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을 때,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 피난민이 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마음을 절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부르짖음’은 ‘기뻐할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하고, ‘노래할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하고, ‘우는 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가든지간에 이 부르짖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상황의 절박함을 뜻합니다. 평소에는 작은 소리로 말한다 하더라도 집에 불(화재)이 나서 사람들을 깨울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불이 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유의하여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상황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목사님,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상담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상황을 읽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2)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약해 질 때에’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약해지다’는 ‘기력이 쇠하다’, ‘실신하다’의 뜻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상황에 온 삶이 짓눌려서 기력이 다 빠진 것 같고, 기절한 것과 같은 상태이지만 마지막 남은 힘,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하나

님께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애굽까지 도망을 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거리로는 마하나임에 있는데, 기껏해야 요단강을 건넌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그로 인해 고통과 소외됨의 심정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기보다 높은 바위로 올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높은 바위’는 대적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주 ‘반석’과 ‘피할 바위, 높은 바위’ 등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원히 안전한 곳인 하나님께 올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에 우산도 없이 밖에 있으면 비를 많이 맞습니다. 우산을 쓰면 덜 맞기는 하지만 한 방울도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산에 빗물

이 스며들기도 하고, 땅에 떨어진 비가 튀어서 다리를 많이 적
습니다. 장마철에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은 집 안에 있는 것입니
다.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한 방
울도 맞지 않습니다. 또 피약별이 작열하는 한 여름이라 할지라
도 에어컨이 켜 있는 집안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또한 한파가
몰아치는 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난방이 켜 있는 집안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집밖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무더워도,
또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있어도 밖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은 집안 상황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안전한 곳이 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음을 고백하는 것입니
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은 소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의 장막’은 본래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인데, 성
소의 핵심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
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주의 장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주의 날개 아래’도 어린 새들이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평안함을 느끼듯이 다윗 자신도 그러고 싶은 소망을 나타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새의 날개는 맹수 앞이나 더 강한
새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

래는 영원히 안전한 곳이기에 주님의 보호 속에 있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일의 출발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있고, 은총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녀 보니,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것입니다.

미리 응답 감사(5~8)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망을 다녀야 하는 처참한 처지를 아뢰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면, 5절부터는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5) 주 하나님이어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개역개정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5절은 ‘왜냐하면(키)’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약속의 땅이자 기업

으로 주신 땅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한을 자신에게 주셨고, 앞으로 다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을 다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곧 행하심이기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6절로 이어집니다.

(6)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인 자신에게 ‘장수(날들. days)’를 더하여 주시고, ‘나이(해들. years)’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 살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지 않게 해 주셔서 몇 백 년, 몇 천 년 살게 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바인,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6)”고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 집안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자신을 1

인칭인 ‘나는’ 또는 ‘내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3인칭인 ‘그가’로 말합니다. 그런 자신을 ‘인자(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진실하심, 신실하심)’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8)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기도는 찬양과 결단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윗에게 밋세바 사건은 없었으면 좋았을, 결코 행하지 않았어야 할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도 3인칭으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할 것입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 것입니다”입니다. 즉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마주대하고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도 신비하게 펼쳐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는, 그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신은 죽은 자와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인 땅 끝에 있는 느낌이 들 때에는 한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높은 바위와 같은 분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으심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자신의 집안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이 시편 61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삶에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온 의지를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기도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2. 다윗과 같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3.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의지를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편 62:1~12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
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 그
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
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 오직 그만이 나
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
리로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
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
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9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
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
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1~4)

오늘 시편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의 통치 시기에 악장(music director)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두둔이 만든 곡조에 따라서 부른 시편은 세 편이 있는데 39편과 62편, 77편입니다. 이 시편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의 참담했던 상황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본문 1, 2, 4, 5, 6, 9절에는 모두 ‘이크’라는 불변사로 시작됩니다. 그 뜻은 ‘오직’, ‘진실로’, ‘확실히’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1절 전반부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성경으로 보면, 1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봄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또렷하게 확신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밤이든, 이른 아침이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역사가 아주 또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별히 ‘잠잠(히)’은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드리지만, 새벽에는 침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같이 ‘오직(아크)’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석으로’, ‘구원으로’, ‘요새로’ 다가와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석’은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절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암벽등반가가 높은 절벽을 가는 모습을 영화나 TV에서 가끔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오를 수 없는 높은 절벽과 같은 분이시고, 다윗을 그 절벽 위에 올려놓으셔서, 안전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새’도 ‘아주 높은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요새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공군력이 발달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

았지만 고대의 높은 곳에 있는 진지(陣地)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진지, 요새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절벽)과 요새(높은 진지)와 같다는 고백 사이에 ‘나의 구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반석되심과 요새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삶은 언제나 녹록지 않았습니 다. 대적들은 언제나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3~4)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은 기울어지고 있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이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대적자들은 그때를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사들을 보면 ‘죽이려 하다’, ‘공격하다’, ‘떨어뜨리려 하다’는 모두 잔인한 장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4절 앞에도 ‘오직’이라는 단어

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오직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의 높은 자리’는 틀림없이 ‘다윗의 왕위’를 의미할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욕을 비롯한 욕망은 끝이 없이 없습니다. 자신의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의 악함을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패륜(悖倫)’이라는 범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소식이 신문지상이나 TV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면, 많이 놀라기도 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20여 년 전부터는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보고 들어도,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인생을, 사회를 새롭게 해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을 강조(5~8)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은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5~6)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6절은 1~2절과 흡사합니다. 다만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했고,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를 뜻하는 ‘*키봐*’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키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사40:31)에서 ‘앙망하다’입니다. ‘*키봐*’의 문자적인 뜻은 ‘줄로 묶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은 1절과 동일하게 동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은 물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더라도,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인생이 난파선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구절은 문장의 구조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문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구원과 영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과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를 ‘하나님’이 감싸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구원, 영광, 반석, 피난처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1절과 5절과 마찬가지로 동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깊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8)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입니다. ‘시시로’의 의미는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뢰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항상 의뢰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의뢰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할 큰 일도 없고, 의뢰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토하라입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큰일도 없고, 아뢰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다른 하나님(9~12)

또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9)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입김과 같고, 인생이 속임수와 같아서 입김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저울에 유리창 입김을 “호”하고 불면,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손도장도 찍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10)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힘으로 무엇을 빼앗으면 잘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이 늘어난다고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도 입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12)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로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는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살게 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든 거기에 있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쫓겨 다니는 삶을 통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존귀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8절에서 “그의 앞에 온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라”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시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아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삶에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 입술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난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2.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인생이 입김과 같고, 속이며 사는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더 무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시편 63:1~11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1 하나님이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 이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9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11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1~7)

시편 표제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입니다. 한편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왕이었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암살림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삼하15:23)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삼하15:28)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때, 마음이 아주 참담할 때에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특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더 줄여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말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듯이,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이여!”에도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좌절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른 풀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 풀과 흡사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찬송가 183장 가사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처럼, 빈들의 마른 풀과 시든 자기 영혼이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는 풀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새벽’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물을 받아서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삼 일 또는 일주일 금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40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을 금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을 며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물을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이 마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물을 금식하는 것과 같이 갈급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갈급함과 하나님을 소망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빈들에 있게 되었을 때에,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아버지가 계신 집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다윗이 성소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집을 그리워하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귀향하고 싶었을 때에 귀향하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집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에 다윗의 목을 노리는 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4)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자(헤세드)’는 ‘자비’,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친절’ 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신약성경의 ‘사랑(아가페)’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처럼, 하나님의 사랑(인자하심)이,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여, 짓누르고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배신하거나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자신의 평생(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송축하다’는 단어는 인간의 편에서는 ‘무릎을 꿇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을 주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펴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손을 펴야 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만족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방과 기름기’인데, ‘최상의 음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고기를 선호하든, 생선을 선호하든, 채식을 선호하든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이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입이 귀에 걸리고 노래가 저절로 나올 지경의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확대할 수 있을 때까지 확대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인 맛을 느끼게 되는 5절의 상태가 됩니다.

(6~7)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도록 인도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윗이 침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키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던 것을 떠올리면 한없이 서글팠을 것입니다. 또한 침상에서 아히도벨을 비롯한 자신의 신하였다가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을 기억했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뜯는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면하게 하신 은총에 감사하며, 새벽 일찍 깨어, 자신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기쁨을 누리겠노라 결단합니다.

광야에서 누리는 승리의 확신(8~11)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겠노라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노라 고백합니다(8). ‘따르다’는 단어의 원 의미는 ‘달라붙다’입니다. 마치 우리 살이 뼈에 달라붙듯이 붙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오른손’, ‘오른’, ‘오른편’ 등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이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

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시60:5)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주의 왼손을 붙드시고’나 ‘하나님의 왼손으로 구원하시고’와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꼭 붙어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9~10)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이라고 명명했다.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죽고), 승냥이(여우 또는 자칼)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마지막을 압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노새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1)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이다

‘왕’이라는 말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즉 ‘그 왕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입니다. 또한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라고 하지 않고, ‘그 왕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라고 한 것은, 비록 자신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주실 것을 확실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로 나간 것은 사냥이나 산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돌아보기 위함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에 쫓겨 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은 대적자들의 잘잘못은 낱낱이 고발하지 않고, 신앙적 다짐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심으심의 결과임을 인정했기에, 거기서 온 삶과 신앙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 등,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해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들에게 배신 당해 마른 풀 외에는 다른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들을 증오하며 복수를 결심하거나, 세상을 향해 불평과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다윗을 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처참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산해진미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말씀과 함께 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또 어떤 환경이든지, 또한 거기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겸손하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은총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은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도 대적자들보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했습니다. 나의 지난 삶은 어떠했습니까?
2.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변함없는 사랑, 자비)이 생명보다 낫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3.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나의 밤과 새벽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시편 64:1~10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이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
 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3 그들이 칼 같
 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 숨은 곳에서 온
 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5 그들은 악한 목
 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 농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
 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6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7 그러나 하나님이 그
 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 이따므로 그들이 었
 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
 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10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에게 꾀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한 사람들의 모의(1~6)

시편 6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
 니다.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 공

동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표제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사람들의 음모, 화살같이 독한 말 등으로 볼 때에 이 시편 역시, 다윗 인생에 가장 큰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란 때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1)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상황이 절박할수록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집에 무장 강도가 들었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아들이었다면, 물건을 빼앗긴 것보다 그 강도가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이 클 것입니다.

다윗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간청’, ‘불평’, ‘수심’, ‘원통’ 등으로 번역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음속에서 자신의 온 삶을 짓누르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온 삶을 짓눌렀던 것은 ‘원수의 두려움’이었고, 그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소외나 무시를 당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큼니다. 우리 사회는 소위 명품에 대한 선호가 큼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제외시키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갖지 못하면 모조품(짜퐁)이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옷도, 먹는 것도, 자동차도, 사는 집도, 심지어 자녀 교육마저도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다른 사람의 눈’입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최고의 교육정책은 ‘자녀 친구 엄마의 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친구 엄마가 과외를 시키면 자기 아들도 과외를 시켜야 합니다. 딸 친구 엄마가 학원을 보내면 자기 딸도 보내야 합니다. 과외나 학원이 필요하게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뒤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생명을 잘라 먹는 식인벌레와 같기 때문입니다.

(2) 주는 악을 피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압살롬을 비롯한 다윗의 반대 세력들은 다윗에게 현상금을

걸어놓고서, 발견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다윗을 잡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어떤 일이 라라도 저지를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감추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찬송가 가사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를 자기 도망 다니는 것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적들의 모략은 아주 갈수록 독해집니다.

(3~4)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칼’과 ‘화살’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적들이 저지르는 언어의 잔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는 것처럼 혀를 베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잔뜩 준비했다가 하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교양 있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게다가 독이 잔뜩 발린 화살촉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쏘아댁니다.

악의적인 루머의 주인공이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 루머가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루머는 사실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생각하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그 루머가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루머에 휩싸이게 되면 마치 독화살을 맞은 듯이 괴롭습니다.

(5)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 농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한 일은 꾸미는 일은 혼자서 하지 않고 대부분 복수의 사람들이 합니다. 즉 악한 일에는 ‘공범’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는 일이 꼭 나쁜 일만이 아니며, 또 자기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혼자서 행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행할 때에 더욱 대담해져서,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악이 커질 대로 커져서 나타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악을 저지르면서 ‘서로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악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울무(올가미)’를 놓았다고 합니다. 울무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다윗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이 악인들 속에서 자라서 그들 속에서 합리화가 되면 상대를 짐승으로 여기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 때문에 상대를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악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 더하여, 제11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11계명은 “들키지 말라”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6)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람들의 속마음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7~10)

하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결코 아닙니다.

(7~8)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몰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추려야 감출 수도 없고, 속이려야 속일 수도 없습니다. 3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자기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갈았고, 화살처럼 독한 말로 상대를 겨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갑자기’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아주 빠른 속도로’라기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뜻합니다.

다윗의 대적의 핵심에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제안한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삼하16:23)”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로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해 있었던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가 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제안이었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삼하17:14).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갑자기 화살을 날리신 것입니

다. 그후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압살롬은 발바다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그의 큰 자랑거리인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의 군대를 피해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에,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새만 빠져나가고 자신은 가지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었다고 해도 5~6미터씩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뭇가지에 몸이 매달릴 정도로 머리카락 전체가 휘감길 수 있었겠습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화살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9~10)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호소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을지라도 그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섬과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숨 쉬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원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정도로 처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비수와 같은 말을 퍼붓고, 독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악하고도 치명적인 말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대적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과정은 몹시도 길게 여겨지고, 한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음을 확신했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인생길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 사람들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절망의 웅덩이에서 소망의 땅을 향해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어떻게 응답해주셨습니까?
2. 칼 같이 날카로운 말, 화살 같이 독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또한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3.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행할 때는 “누가 우리를 보리요?”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상황을 넘어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

시편 65:1~13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이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8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9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13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시온에서 부르는 찬송(1~4)

시편 6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의 내용 가운데 농사를 통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미루어 이 시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시기에 지키던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을 앞두고 지어진 시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으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절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앞서 기다리는 시인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침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드리고, 보여드리려 하기 전에 우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헤아려볼 수 있습니다. 고요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한 장소로 ‘시온’을 언급하고 있는 점입니다. 시온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이지만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언약궤가 놓여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마음을 모아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려는 시인의 열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온에서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던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하며 가장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한 기도대로 다 응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다윗은 음식도 먹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을 때는 더 이상 어떤 원망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을 최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 응답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한 뜻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주님의 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에게 한해 그가 하나님의 뜰에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그 곳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

시고, 길을 열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죄인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본다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과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5~13)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셔서 세상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두려워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10)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식물이 자라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모든 사물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음은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시대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며 이 어렵고 중요한 일을 직접 성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땅이 곡식을 내기에 적합한 땅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라는 표현처럼 이랑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물을 밭에 공급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a)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씩으시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듯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친히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곁에 세워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한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우선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내 평생 사는동안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과 마음을 가까이 하기 위해 시온에서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을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결단과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잠잠히 기다리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 있는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3.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지만 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보며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4.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시인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말로 표현해 봅시다.

Praise to the LORD

시편 66:1~20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4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5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6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가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7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8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1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12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3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14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

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17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9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찬양하라(1~4)

시편 66편의 표제는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앞선 51편부터 65편까지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과 대조할 때, 분명 다윗이 기록한 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로 불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자는 많은 이들이 함께 노래할 때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힘이 있는 사람은 왕이나 그에 버금가는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명령형의 첫 문장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 분명합니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창조주께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즐거운 소리는 전쟁의 승리했다는 소식을

을 듣고 귀가 찢어질 듯한 기쁨의 합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전쟁의 승패가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에, 그 소리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했을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어 그 합성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2~4)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는 그 자체로 영광스런 존재이며, 마땅히 찬양 받아야 하기에 명령형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특히 3, 4 절은 찬양의 구체적 내용들을 직접화법으로 기록합니다.

(2-4, 새번역)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이와 같은 형태는 공동번역과 NIV 등 다른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조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 확인되고, 성령을 통해 확신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겸손히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거듭 교훈합니다.

공동체의 찬양(5~12)

이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단, 회복에 대한 간증과 찬양을 이어갑니다.

(5)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와서 보라’ 복수 명령문을 통해 자신의 민족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피조된 모든 이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구체적 사건을 제시합니다.

(6~7)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원문에는 서술어가 온전한 세 개의 문장으로 구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한 문장으로 기록된 한글 번역에는 앞 문장이 마치 뒷 문장과 인과 관계를 이루는 듯한 오해를 야기합니다. 원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절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하셨다’, 중반절은 ‘무리가 그 강을 도보로 통과하였다’, 하반절은 ‘거기서 우리들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를 통해 본 절은 흥해나

요단강 중의 하나를 통과한 사건이 아닌, 출애굽 전체 과정의 사건들 함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반절은 홍해를 중반절은 요단강을, 후반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자는 곧장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앞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대단한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8~9)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10~12)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 후 고난과 역경들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기록한 순서를 주목해보면,

결코 그 강도가 경감되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중되는 고난들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심이었고,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는 큰 그림 속에 있었음을 해석해 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고난의 상황은 결코 나락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찬양 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찬양(13~20)

끝으로 기자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과 찬양이 이어집니다.

(13~15)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값오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환난 때 자신의 언급한 서원의 이행 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살진 것으로 드린다는 표현을 통해 그 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번제물로 드릴 제물들을 원문 상에 복수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력이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17~20)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5절과 같이 ‘와서 들으라’는 복수 명령문을 통해 자신의 경험한 은혜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거듭 초청합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악을 품을 만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자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할 것을 고백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66편은 찬양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면서, ‘와서 보라’(5). 먼저 민족 공동체가 경험한 은혜의 사건으로 초청합니다. ‘와서 들으라’(17). 이어 기자 개인이 경험한 은혜의 사건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빌립이, 의심하는 나dana엘을 초청하며 사용했던 말과 같습니다. ‘와서 보라’(요1:46). 말로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직접 와서 보고, 직접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자는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다시 봅니다. 시편 기

자는 그의 삶의 인도자를 따라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노래를 주문하고 계실까요? 참된 인도자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채워질 것 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찬양으로 채워질 것 입니다. 머지않은 하나님의 때에 온 땅은 찬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찬양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소리를 내면서도 스스로 찬양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고, 더욱이 구원받은 우리는 힘써 찬양해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오직 그분께만 시선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찬양이 온 땅을 가득 채울 찬양의 시작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오늘을 향기나는 제물이 태워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 삶의 인도자는 누구였는지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주변의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3. 찬양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비교하며 묵상하여 봅시다.
4. 찬양의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시편 67:1~7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 하나님이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5 하나님이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만민의 구원(1~3)

시편 67편의 표제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일곱 편(4, 6, 54, 55, 61, 67, 76편)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과 76편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중한 분

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바뀐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바이올린이 연주하는데, 가장 낮은 줄인 G선을 켜다가 첫 번째 줄인 E선이나 두 번째 줄인 A선을 연주하는 느낌입니다.

본문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의 표현이 있어서, 추수 이후의 절기인 ‘장막절’에 낭송되었고,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추수의 기쁨이나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세계적’입니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 말씀은 민수기 6:24-26)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한 내용을 가져와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의 히브리어는 ‘동사-주어-목적어’가 평서

2) (민6:24-26)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문의 기본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엘로힘)’이라는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의미는 강조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사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문법에 ‘강조구문’이 있듯이, 히브리어 평서문에서는 주어 앞세워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는 의미는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우상은 은혜와 복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장막절에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중동에서 농사의 신, 수확과 결실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 신이었습니다. 시인은 은혜와 복의 출발은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힘을 주어서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넘어서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숙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신앙은 영어 알파벳 ‘X’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엑스의 윗부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많다면, 반드시 그만큼 아랫부분도 넓게 쌓이게 됩니다. 만약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다고 고백하면서도 흘러 내리는 것이 적거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엑스의 위에서 사라지거나, 썩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절의 시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을 주시고”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와 ‘긍휼히 여기사’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우리말로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하여 주심’, ‘이유 없는 총애를 보이심’의 개념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

브라함이 복의 마지막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b)”고 하셨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신약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온 세상에 있으셨음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은 참 신실하고도 깊은 넓은 신앙고백입니다.

(3)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본 바와 같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위기와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주변의 몇 몇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만민의 찬미(4~5)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는 ‘감정충만하게’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기쁘게 하다’는 단어는 한 사람의 전체가 기뻐하거나, 대상을 즐겁게 할 때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즉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노래하는 것이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하면,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옵니다.

또 ‘즐겁게 노래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큰 소리로 노래하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크게 놀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과 같은 축구 경기가 0:0 또는 1:1의 상태로 끝까지 진행되다가 종료 1분을 남겨 놓고, 상대방 골문에 우리나라 선수가 골인을 시킬 때, 조마조마하던 마음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함입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은 불공평하게 여겨지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긴 역사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스리다’의 의미는 ‘인도하다’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b)에서 ‘인도하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5)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를 반복해서 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임을 더욱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심에 감사(6~7)

(6~7)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땅이 오곡백과를 결실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 등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총명하고, 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거나 누리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으로 인함이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을 중심으로, 1~2절과 6~7절이 4절을 밖에서 감싸고, 3절과 5절이 안에서 4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기원하고,

6~7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중심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듯이, 우리도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에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받을 정도의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얼굴빛의 비침을 받을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연결고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도 내가 내 인생을 잘 다스리며,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온 마음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2. 아브라함이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당신의 삶에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또한 나는 누구에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3.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언제, 무슨 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있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시편 68:1~18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흠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갠한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7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8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9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고 10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1 주께서 말씀 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2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13 너희가 양 우리에게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4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흡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15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6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을 기원함(1~6)

시편 68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인도자(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의 고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음과 승리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으로 보아서,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배경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Nahash)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 다윗은 그의 죽음에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하눈과 암몬의 관리들은 그 조문을 의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조문이 아니라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은 조문 온 다윗의 신하들이 심한 수치심을 느끼도록 그들의 수염 절반을 강제로 깎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자르고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왕은 심하게 수치스러워하는 조문단을 배려하여,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렀다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그것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아람 사람 20,000명, 마아가 왕의 군대 1,000명, 돕 사람 12,000명 등 모두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조문 사절단에게 망신 준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 정도의 군인들을 지금 용병으로 고용하려 하면, 최소한 몇조 원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암몬은 용병을 고용하여 위용을 갖추는 듯했지만, 그 연합군들은 다윗과 다윗의 신하인 요압에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에 관한 내용과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에 관한 내용 등을 인용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뚜렷이 나타납니다.

(1)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

시기에 앓고 일어서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수들은 ‘연기’와 같고 ‘밀(양초)’와 같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불을 피울 때를 기억해 보면, 초반에는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연기가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찢끔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운 연기가 자욱하다고 해도 바람이 불고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에 그 속에 양초를 던져 넣으면, 양초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양초가 보여도 이내 녹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훅!”하고 바람만 한 번 부시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3~4)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이다

의인(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
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
며’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연기처럼, 밀(양초)처
럼 사라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뛰어 놉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는 이방인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
람들이었습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라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판결자
(변호인)가 되어주셔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6)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갠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孤獨)’의 문자적인 뜻은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입니다. 대가족으로 살던 시대에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는 것은 정말 큰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처방전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가정과 가족의 회복은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 현대는 1인 가구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의 구역과 같은 공동체가 가족과 같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에 갇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듯이, 해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것에 매여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함을 고집한다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풍성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내 인생의 황량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돌아봄(7~18)

1-6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향해 사는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인은 황량함과 망할 수밖에 없음을 노래했다면, 7-18절은 과거에, 특히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7-10)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며 주께서 흠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며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만 내보 내시거나 그들을 앞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고 하십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민1:33).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추어서 내려주심으로 농사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흠족한 비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흠족한’의 뜻은 ‘풍성한, 아낌없는, 자발적으로’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셨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11~12). 과거에 우리나라가 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하거나, 운동선수가 큰 경기에서 이기거나 우승했을 때, 카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성경에서도 큰 일이 이루어졌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는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기쁨으로 찬양했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대에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것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승리를 하게 하셔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인들도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17)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바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높은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맥을 가리키는데, 북쪽에 혈몬산(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2,814m입니다. 2,744m의 백두산보다 70m정도 높습니다. 혈몬산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바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인 ‘시온산’에게 시기심(적개심)을 품고서 본다고 합니다. 시온산은 높이가 765m로 바산에 비하면 언덕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산이 아니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넘볼

수 없는 것은 그 언덕과 같은 낮은 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시온산은 영원히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낮아보여도,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높아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낮지 않은 인
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높아보여도 그 인생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인생이
낮아보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
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연기와 같고, 불에 녹
아사라지는 밀(양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바산과 같
이 않고, 언덕과 같은 시온산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함
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화면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일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사회의 가정들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가정답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가족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바산과 같이 높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온산과 같이 언덕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힘과 가치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녀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람 앞의 연기와 같고, 불 앞의 밀(초)과 같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삶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어머니)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와 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3. 사람들은 바산과 같이 높은 산이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시온산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바산과 시온산 중 무엇을 더 추구합니까? 어떤 길이 더 옳은 길이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을 지시는 주

시편 68:19~35

19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로다 (셀라)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
 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21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
 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22 주께서 말씀하시
 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
 게 하고 23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24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25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
 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26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이다 27 거기
 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나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
 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28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29 예
 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30 갈
 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밭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흠으셨도다 31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32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이다 (셀라) 33 옛적 하

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보다 34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 하나님이며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승리 확신 찬양(19~23)

시편 68편 1~18절은 현재와 과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갈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의 연기와 같고, 타오르는 불 앞에서 녹아 없어지는 밀(양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양육 받지 못하는 고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며,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들에게는 재판장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독한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은 꺼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

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앞서 가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추어서 흠족하게 내려주심으로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여인들이 춤추어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온산은 혈몬산 등이 있는 바산(산맥)에 비하면 작은 동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으로 영원히 높은 산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모임에서 지리산을 올라갔는데, 내려오다가 그만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엉덩이뼈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내려오려고 하니, 짐이 갑자기 여러 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친 친구를 두 명이 어깨동무를 하고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려니 다친 친구의 배낭을 누군가가 대신 매어야 했고, 어깨를 부축하며 내려간 두 친구의 배낭을 또

누군가가 또 매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쳤는데, 그와 함께 내려가려고 하니, 5명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짐을 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합니다. ‘날마다’는 ‘하루, 일 년, 시간, 기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욘’을 겹쳐서 ‘욘욘’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짐이 없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깊이 깨닫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짐을 져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우리에게 있는 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20~21)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

입니다. 인간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죽음의 짐’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죄를 짓는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치신다고 하십니다. 고대에 아라비아 지역의 무사(武士)들은 자신이 무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 거만, 자만 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만용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맞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 영원한 이익입니다.

(22~23)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서 미래에 주시는 승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원수,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산에서도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도 끌어 나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산(산맥)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맥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험하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 산맥 북쪽에 팔레스타인에서 최고봉인 2,814m의 험몬산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산이 험해, 도망 다니는 사람들의 최고의 은신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다 깊은 곳’은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을 오른 사람은 많지만,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원수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숨어도,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다 찾아내신다고 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원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비참 결과를 맞아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말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24~35)

19~23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린 찬양이었다면, 24~35절은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24)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다윗은 행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3가지_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1인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완전하시고 크신 분으로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분이신 것을 삶으로 인정하지 않을수록,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윗 자신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데 자신도 신하 중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임하시는 곳이 ‘성소’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

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25~27)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치는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였다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을 목격했거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을 격려 할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의 카퍼레이드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넌것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했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서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심을 확인하고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속한 네 지파를 언급합니다.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는 찬양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 지역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은 온 이스라엘이 찬양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8)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28, 새번역)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
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
의 모습이라도 꾸려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중
심으로 수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르고 제대로 섬기
게 될 것입니다.

(34~35)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며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
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재능이

있다든지, 같은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든지, 또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 역시 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주 또렷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달마다, 순간마다 대신 져 주셨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즐기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결눈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우리의 짐을 져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함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의 온 의지와 온 삶과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비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짐을 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데, 하나님께서 짐을 저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짐인 죄의 짐과 죽음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와 죽음의 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의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여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뒤에 있으려고 하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하고,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섬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날마다(때마다) 우리의 짐을 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짐을 대신 저주신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2.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높은 산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서는 찾아내시며, 깊은 바다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혹 하나님께
발견되시거나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3.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소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시편 69:1~18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이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께 되었나이다 5 하나
 님이어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
 이다 6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
 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
 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7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 내가 굶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 거리가 되었나이다 12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13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어 많은 인자와 구
 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

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16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7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고뇌에 찬 부르짖음(1~4)

시편 69편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입니다. ‘소산님’이 시편 표제에 세 번(45, 69, 80편) 나오는데, 성경 각주를 보면 ‘백합화 곡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합화’ 꽃말이 ‘순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소산님 곡조였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되었기에 ‘왕의 축가’라고 불리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산님(백합화 곡조)이지만, 시편 45편이 우아하고 품위 있게 꾸며진 왕궁 뜰에 피는 백합화라면, 오늘 본문 69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피는 백합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8절의 ‘내가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며,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란이나,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 하나님이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전능하신 분)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왔다고 합니다. 천천히 내려야 할 비가 폭우로 몇 시간 만에 내린다면 강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납니다. 물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점점 차올라온다면 그 두려움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서 ‘물’이 흘러온 것이 아니라 ‘물들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 물들은 ‘영혼’까지 밀려왔습니다. 계곡물이 계속 불어나서 처음에는 무릎까지 잠기더니, 계속 차올라 배까지, 가슴까지, 턱까지 차오르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턱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2)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보다 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1절에서는 물이 차 오르는 것은 했지만 턱까지 차올라 숨은 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곳이 바로 ‘수렁’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제 도움을 요청할 힘마저도 없습니다. 그의 목은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갈라진 논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친한 친구가 3명이 있고, 친구가 30명이 있고, 아는 사람이 300명이 있고,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머

리카락 개수는 약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아는 사람도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강해서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통을 호소(5~12)

(5) 하나님이어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참 정직합니다. 자신이 대적들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을 자동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둘 다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주는(당신은)’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6)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로 인해
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배려심이 참 깊습니다.

(7~8)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비방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사람이 압살롬이든 아도니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윗이 형제(=어머니의 자녀)에
게 외면당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반란을 당했을 때에 가
족들 중에서 다윗의 편을 든 사람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말성경에는 없지만, 9절 서두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과 배척을 당했던 것은 ‘주의 집’, 곧 ‘하나님’을 위하는 열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서, 처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든 사람들의 상을 엮으시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윗의 이 고백,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를 기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면,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망신을 주고, 다윗이 배움을 입고 슬퍼하면, 사람들은 청승스럽다고 수군거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빈정거림을 당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건져주심을 바라는 간구(13~18)

(13)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며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외면당하는 자신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신실)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3장 1절 가사에도 나오듯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되시는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14~15)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수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절의 수렁이 ‘늪’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14절의 ‘수렁’은 진흙으로 된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마치 썰물 때에 서해안 바닷가로 갔는데, 갯벌에 몸이 빠지는데 주변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갯벌에 몸이 많이 빠져서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물이 시작되어 물이 점점 차 올라가 갑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16~18)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공홀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은 공홀이 많으신 분이시니 얼굴을 자신에게
돌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시기기를 갈망합니다. ‘공홀’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말에 왔습니다.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면,
목숨을 다해서 지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
져 올려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란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
이었던지 간에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배척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평생 하나님의 얼
굴을 구하는 삶,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신앙의 사표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우리가 그곳에서 바르게, 신실하
게 행함에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공홀과 속량
을 경험하며,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
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터로 목숨을 걸며 먹을 것을 형들에게 갖다 주었지만 감사의 말이 아니라 핀잔과 욕을 들었습니다.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아내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인 사울왕은 군인을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며 사위인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늘그막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버지를 임금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윗에게는 몹시도 고통스러웠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은 자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얼굴을 보았고,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 우리 신앙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일을, 그것과 같지 않을지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2. 다윗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으로 인해서 사람들, 특히 가족들로부터도 비방을 받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했던 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3.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상한 마음의 기도가 감사와 찬송으로

시편 69:19~35

19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20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
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
였나이다 21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
시게 하였사오니 22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이 되게 하소서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
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
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26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27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9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 내가 노
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
시게 함이 될 것이라 32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
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33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떨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4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리다

35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괴로워합니까? 육체가 아플 때 입니까? 마음이 아플 때 입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자신과 가까이 지내며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외면, 불신, 배신을 당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고뇌하는 이유는 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큼니다. 다윗이 더 힘들었던 부분은 자기편이 되어서 도와줄 사람들조차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자기편이 되어 줄 사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으로 인해 대적자들로부터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상한 마음의 기도(18~28)

(19)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현재 나의 괴로움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완벽히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빨리 대적자들을 막아달라며 애절하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제대로 도와줄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편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에는 대적자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없던 대적자도 나타납니다. 다윗의 형편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지를 표현한 것이 20절입니다.

(20)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대적자의 비방으로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근심을 치유하고 해결해 줄 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상한 마음과 근심이 있을 때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해보아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고 괴로워하며 신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했던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간장에 찬밥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누가 지독하게 쓴 한약을 밥으로 먹을 수 있으며, 아무리 목마르다고 할지라도 누가 식초를 물에 희석하지 않고 원액으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수치가 극에 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00을 가지고 있다가 200을 물어줄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채권자에게 90을 먼저 주고 나머지 10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그것을 불러 천천히 110을 갚도록 선처를 호소하지만 채권자가 무자비하게 나머지 10마저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22~25)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닳아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은 대적자들의 식탁과 거주지, 육체와 정신 등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 대로 보응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대적자들이 훗날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결과로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는 다윗도 다윗의 대적자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두 편이 각각 겪는 어려움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니고서야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을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다만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선벌악의 형태와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 현상이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을 상선벌악의 최종 결과로 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금 겪는 과정은 내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 잘 참고 견뎌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한 눈 이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에 주시는 것인 줄로 받아들입니다.

(26)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치신 사람, 주님께서 상하게 하신 사람이 꼭 악인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께서 치신 사람의 범주에는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치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어떤 이유이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밟고 일어설 기회로 생각하고 더 괴롭게 합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거나 평소에 나쁜 감정을 가졌던 사람일 때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일 수 있고 구원과 자비를 받아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27~28)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는 악인에게 의식주 등 삶의 전 분야가 힘들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내용입니다. 악인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하여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가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과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같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마시옵소서’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저주 기도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고 다른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언행으로 되갚는 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푸는지 말입니다. 최선은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당신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감사와 찬송, 기쁨(29~36)

다윗은 이제 초점을 대적자들에게서 자신에게로 전환합니다.

(29~30)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자신의 고통 호소에서 이제 자신의 구원 간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치시고 상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절한 자가 되도록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이 임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31~32)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황소나 황금을 많이 드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물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물이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가난하고 슬픈 자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곤고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곤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해결 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게 됩니다.

(33~34) 여호와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궁핍한 자 역시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며 궁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삶의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송함은 사람들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35~36)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중에 살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굳게 결심하여 주님을 따르면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부모가 주님을 따랐듯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에는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저희들을 치시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쓸개를 음식물로, 초를 물로 먹고 마시면서 고통과 번뇌를 참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곳시온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 자기 부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말로 전해지는 비난이나 통신 매체(SNS, 인터넷)를 통해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 외면, 불신, 배신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직접 그들에게 대응하는 형(타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형(타입)입니까?
3. 다윗의 기도,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29)에서 가난, 슬픔, 구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4.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0~31)
5.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근심이 있는 사람(곤고한 자)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출구, 여호와

시편 70:1~5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이어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38편 설교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시는 절기 행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노래로 불렀습니다. 즉 다윗 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편 70편은 71편과 원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71편의 시제가 없고 서로 비슷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등’ 이 그렇습니다. 70편의 전체 내용은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어 도움을 청하는 탄원시입니다.

구조 요청과 악인의 패배 간구(1~3)

(1) 하나님이며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신고할 때, 119에 구조요청 할 때 말하는 이의 어투와 감정이 어떠합니까? 볼 일 다 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오고 바쁘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다만 1초라도 빨리 와달라며 간곡하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더 마음 깊이 와 닿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하게 해 줄 이가 없음을 알고 진액을 짜내는 듯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재앙을 겪고 삶이 피폐해져갈수록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깔깔대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 말합니다. 목숨을 빼앗기 위해 원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중에, 저들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없이 하여 달라는 요청도 아니고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수치와 무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은 목숨을 원하고 있는데,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정도로 갇아달라는 다윗의 태도는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원수들을 떠올려 봅시다. 사울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장인어른, 또 다른 이는 피붙이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되어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내 영혼을 탐하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나, 차마 내 입으로, 내 손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갇아 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이제 내 원수가 아니

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듯합니다.

의인의 승리 간구(4~5)

(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4절은 2절과 형식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취합니다. 2절에서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라고 나와 있으며 4절에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과 4절은 악인과 의인의 행동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은 다윗을 찾으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한분만을 찾습니다. 찾아야 할 대상이 바로 서 있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지고 보배로워집니다.

타인의 멸망과 고통을 원하는 자들의 결말은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다스리심을 원하는 자들의 종래에는 생명의 면류관과 온 세상 가득 울리는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오직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합니다.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삶의 주인이 하

나님 한분이 될 때에 그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십니다.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며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 말합니다. 그가 그토록 스스로를 낮고 천한 자리에 두는 이유를 시편 69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69:33)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사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크신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시며, 쓰러린 상처를 부여잡고 있을 때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낮추고 하염없이 울부짖을 때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스스로를 낮추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비방과 조롱을 받는 일도 이따금씩 존재합니다.

말이 와전되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던 일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변두리로 내몰려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소연 할 상대도 찾지 못한 채 혼자서만 시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그러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지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온 신경을 그곳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손을 놓아버리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시고, 그 어떤 지혜자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외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과 내 지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십시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스스로를 향한 다윗의 말처럼 한없이 나를 낮추십시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며 외면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다. 마지막까지 사랑과 배려로 원수들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시편 70편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 속에 아름답게 구현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곤란한 상황과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상실하고 청정하도록 지켜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나가는 섭리인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장애를 만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가정, 직장 등 사회에서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봅시다.
3.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환난과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4. '주를 찾는 자가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늡어 백발이 될 때에도

시편 71:1~24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4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8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 늡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피하여 11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12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5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

만 전하겠나이다 17 하나님이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 하나님이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9 하나님이어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20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1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2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노년의 기도(1~13)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표제가 있는 시편은 116편이고, 표제가 없는 시편은 34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학자)들은 내용적으로 예레미야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훨씬 더 많이 비슷한 것은 다윗의 다른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

을 때, 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어제 살핀 시편 70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이 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제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2)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특히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시편에는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시인(다윗)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기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 자신은 수치를 당할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밤길을 걷고 있는데, 괴한이 쫓아온다면 피해서 도망을 가야할 것입니다. 그때 앞에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편의점과 같은 가게로 피하기도 하지만, 가게보다 훨씬

더 안전한 피난처는 경찰서나 파출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피할 곳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견고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했겠습니까?

(3)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바위와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바위가 아무리 강해도 바위보다 더 강한 것도 있습니다. 또 큰 바위가 흙이나 작은 돌보다 강해도 바위가 땅위로 굴러 내려오면 깨어집니다. 또한 고대에는 아무리 철옹성 같은 요새와 같았다할지라도 현대에는 그 요새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사일을 날리거나 공군 전투기로 폭탄을 발사하면, 요새는 평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바위와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요새가 되시기에 유한한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를 하시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로 ‘항상’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4)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손’은 ‘힘’이나 ‘영향력’을 뜻합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에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손이 자녀들의 삶에 구석구석 닿아있다”라고 말한다면,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掌中)’은 문자 그대로 ‘손바닥 안’입니다. 그래서 ‘장악력_쥐는 힘’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그 영향력이 커다랄지라도, 또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장악력이 제 아무리 세다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5~6)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5~6절의 표현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시인은 ‘모태신앙인’, ‘모태선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다가, 인생 늘그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것도 은총과 복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한평생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더할 나위없는 은총과 복입니다.

‘어릴 때부터’는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그 때로부터 유년, 청소년, 청년기’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다윗이라면, ‘어릴 때부터’는 틀림없이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삼상17:38)”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5~6절의 고백은 “양을 치던 청소년 시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의 의미일 것입니다.

(9~12)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의 이용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이용가치가 덜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 현

상은 나이가 들게 되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퇴직을 해야 하고, 또 친구들이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혹 자신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버리지 마시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떠나지 말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힘과 능력이 있고, 스스로가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청장년기에는 자신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비로소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떨어짐과 나이가 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에 복 중에서도 아주 큰 복입니다.

노년의 찬미(14~24)

(14~15)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이용가치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신 주님을 ‘더욱 더욱’ 찬송할 것이며, 자신은 도저히 측량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8~19) 하나님이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며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시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주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이러한 일은 젊은 사람들은 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가 든 부모님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은 흘려듣습니다. 때로는 귀찮지만 효도 차원에서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그들도 후에 그 자녀

들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23~24)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 피하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할 것이며, 또한 하루 종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노라고 합니다. 지금의 찬양과 읊조림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장래에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와 같이 시작되는 시편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편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36편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지금의 상황은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느슨하지 않게 만들어 주어서, 더

욱 더 주님과 관계를 훨씬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심은, 혹 그 속에 고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싱싱하고, 청정하게 살아있게 하기 위함이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느슨하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므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몹시도 다급하고, 또한 수치를 겪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을지라도,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뢰함을 봅니다. 또한 시인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을 확신했기에, 악인들과 흉악한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감격스러워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 삶과 신앙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과는 달리,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삶을 더 신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더 청정하게 살아있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을 깊이 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느슨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숨을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시거나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해주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2.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확실하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3. 시인은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싶다고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느슨하지 않고, 싱싱하고도 청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편 72:1~20

[솔로몬의 시]

1 하나님이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5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6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8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9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굶으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10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비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1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2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붙잡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15 그들이 생존하여 스비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6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

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17 그의 이름이 영구
 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18 홀로 기이한 일
 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
 다 아멘 아멘 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왕의 의로운 통치(1~7)

시편 전체 150편은 다섯 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권이 1~41
 편까지이고, 2권이 42편에서 오늘 본문 72편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
 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마침표를 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가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라면, 다윗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
 면 다윗이 자신이 지은 다른 시들은 모두 ‘다윗의 시’라고 하고,
 이 시만은 자신이 지었음에도 ‘솔로몬의 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듯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아
 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시의 초안을 작성했지만, 고령이나 기력
 이 쇠해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을 때, 솔로몬이 많이 수정해
 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2) 하나님이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하나님)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정의(1절의 판단력도 같은 단어)’는 ‘올바른 재판’과 관련이 많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유전무죄나 무전유죄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 올바른 행함을 실천하는 것을 ‘정의(just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판단의 의로우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의(righteousness)’는 ‘성품의 올바름’, ‘관계의 올바름’, ‘이웃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올바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동참하는 것은 ‘공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관계의 의로우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일천 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천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9)”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3)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이 공의로 통치하여 선정(善政)을 베풀 때,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바른 통치를 하니, 이스라엘의 산들과 작은 산들이 비옥해져서, 결실을 많이 맺게 되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의로운 성품으로 바르게 통치하니, 그 영향을 받은 장관들이나 도지사, 시장 등은 물론 마을의 동장, 통장 반장이니 면장, 이장까지 선하게 통치하여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통치자가 어떻게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

현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통치자는 좋은 변호인이 되어야 합니다. 궁핍한 사람은 구원(굶어죽지 않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박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지 않도록 꺾여야 한다고 합니다.

(6~7)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다

공의를 행하는 왕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면, 농부들은 들판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우기에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잡초를 제거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들판은 이내 황폐해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을 벤 때를 맞추어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소낙비도 동일합니다. 온 땅이 바짝 말라 있다가 땅을 충분히 적시는 소낙비를 만나게 되면, 황무지와 같은 곳이 푸른 초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가 그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는 주님의 통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찬송가 183장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빈들에 있는 마른 풀 같을지라도,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초목이 무성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38)”고 하셨습니다.

왕의 세계적 통치(8~14)

의로운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계로 나아갑니다.

(8~10)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는 ‘온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 스바는 아라비아 남서쪽, 시바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왕은 그러한 지역 모두를 다스리며, 광야(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왕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 왕의 원수들마저도 왕 앞으로 나아와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 달라 기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온 세상을 다스렸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 다스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던 나라는 ‘대영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분의 일이 대영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대영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나라는 더 많았고,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라를 실제로 다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2~14)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이다

12절은 ‘왜냐하면’의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그 왕께 엎드리고 섬겨야 하는 까닭은, 그는 궁핍한 사람들과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들의 짓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성군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하늘보좌 위에서도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

치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에 대한 찬송(15~20)

(15)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5, 새번역)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왕을 칭송합니다. ‘만수무강할 것이다’,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계속될 것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을 비롯하여,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에 앉은 사람들이 통치를 오랫동안 계속하며, 못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염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 부터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8~19)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1~17절의 말씀을 이루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은 시편에는 세 번 나옵니다. 시편 제1권의 마지막인 41편에, 그리고 제2권의 마지막인 72편에,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에 나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등의 뜻인 아멘을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공의롭고도 정의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당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과 신앙은 더 심상해지고 더 청정해졌으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느슨하지 않도록 당겨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공의와 정의의 줄로 우리를 당겨 주시며, 사랑과 자비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께 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만큼 더 청정해지고, 더 생명의 호흡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는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는 왕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백성들을 향한 듣는 마음이 있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었을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야 할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냄으로 그곳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자리임에도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더 생명력 있게 하고, 더 청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24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솔로몬은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의 판단력(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심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으로 신실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이전 신앙(삶)과 지금 신앙(삶)은 어떻게 바뀌어 왔습니까?
3.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느슨하지 않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시편 73:1~28

[아삽의 시]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 살집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

지시니 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21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렸나이다 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궁이시라 27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의 형통(1~12)

시편 전체 150편은 모두 다섯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시편 73편부터 3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표제는 ‘아삽의 시’입니다. 전체 시편 중에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모두 101편입니다. 그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 가장 많은 73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아삽인데 12편이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오늘 본문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모두 아삽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두둔과 더불어 헤만과 아삽 형제는 3대 악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자신

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점차 아삽의 위치는 높아져 찬송 업무를 맡아 하던 모든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견자(대하29:30)’로도 불린 것으로 보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깊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오늘날로 하면 음악목회자 또는 찬양대 지휘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아삽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분,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신 분이시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삽의 이 말은 마치 ‘반어법’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분이 아니시며, 특히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의 의미로 들립니다.

(2~3)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아삽은 참 솔직합니다. 자기 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삽은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앉은 상태로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 다. 자기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일, 답을 찾고 싶은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로 인한 속이 상함이었습니다.

(4~5)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였으니, 죽을 때는 불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떨어진 벼락을 맞든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든지 등의 이유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더 오래 살고, 자식들 앞에 유언도 다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도 강건했습니다. 매일 등산과 운동하며 체력을 기르고, 가고 싶은 곳 다 다녔습니다. 아삽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오만방자하였는지 자세하게 말합니다.

(6~9)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교만은 목걸이와 같았습니다. 당시에 목걸이는 가장 돋보이는 장신구였습니다.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소설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최고로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목걸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빌렸다가 잃어버려 10년 동안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강포(폭력)이 그들의 옷이었습니다. 목걸이는 걸고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풀고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옷은 반드시 입고서 나갑니다. 그래서 강포가 옷이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게 폭력은 일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금력 등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살이 찌서 눈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호의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시절이라, 똥똥하여 나온 배를 ‘사장님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살쪼미 공공의 적이지만, 과거에 사장님배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악인은 얼굴까지 살이 찢 정도로 잘 먹는 것을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가게를 하는데 옆 가게는 한 달에 1만원을 버는데, 악인의 가게에서는 5~6만원을 벌니다. 땅을 사면 값이 오르고, 팔면 내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씨도 거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

고, 혀가 땅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며,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라며 막말을 하고, 악하게 행동하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악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심경(13~17)

악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시인 아삽의 마음은 몹시도 불편합니다.

(13~14)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 아삽은 “만약 악인의 삶이 저러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산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에서 ‘실로 헛되도다’가 구절의 가장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삽이 악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후!”하고 한 숨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겪는 자신은 하나님께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6)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인 아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몸
부림을 쳤지만, 그 문제는 풀기가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남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18~28)

하지만 아삽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18~19)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절에서 아삽은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는데, 정작 미끄러진 사람들은 악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끄러운 곳’이 ‘복수형’입니다. 악한 사
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미끄러지지 않는 곳이고, 자신은 등
산화를 신고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
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니까, 그들은 기울어진 대리석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름칠을 한 대리석입니다.
한 곳만 그렇지 않고 서 있는 곳마다 기름칠 된, 기울어진 대리

석입니다. 그 대리석에서 미끄러져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 마지막에 팻말이 붙었는데 ‘파멸’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이 땅에서 큰 소리며, 잘 먹고 잘사는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2~23)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은 꽤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보니 우매무지하고, 짐승과 같았습니다.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짐승입니다”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총명해 보아야 짐승입니다. 개가 천재라고 해 봐야 잠긴 문을 열 수 있고, 아침에 신문을 가져오고, 눈에 띄는 곳에 만들어 놓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 ‘우편/오른편’ 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각인하게 된 것입니다.

(26~28)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리고 결코 미끄러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여도, 또 아무리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할지라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악인들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마침 때는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노라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한숨과 하소연,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17절입니다.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성소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한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삽과 같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있지 않습니다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답을 찾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질문에 답을 찾았었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직면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해결책과 질문의 답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직면하는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하나님과 직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에 순종하다보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 아픔, 고난 고통들은 우리의 삶과 영을 더욱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축매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직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해결되고 정리되며,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삽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함과 오만함이 부러워 질투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삽은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큰소리치고 살며, 죽을 때도 평안한 것을 보고서 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에게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삽과 같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의 새벽기도회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분량만큼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더 청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 가운데 악인들로 인해서 넘어질 뻔하거나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아삽의 시대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악인들이 호의호식하는 것 같고, 큰 소리를 치며 사는 것같이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마음과 삶을 정리하십니까?
3.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시편 74:1~23

[아삽의 마스길]

1 하나님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2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3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5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6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었었나이다 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10 하나님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15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 하나이다 21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2 하나님이며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1~11)

시편 74편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세 명의 악장, 여두둔, 헤만, 아삽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삽은 처음에는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담당하였는데, 나중에는 찬송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선견자’로도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은 시인 중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것은 그가 시를 잘 짓는 시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바른 관

계를 잘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에 이런 표제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고난에 직면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를 통해서,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행동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었었나이다” 성소(성전)가 불에 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람입니다. 다윗 때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었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때는 성전이 불에 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에 탔던 때는 바로, B.C. 586년에 있었던 사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고레스 때에야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노래로 섬겼던 사람들 중에 아삽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이 시편을 지었고, 자기 조상 중에 최고의 음악감독이었던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하나님이며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히브리어성경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이여’순으로 나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사람들이요, 또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나라가 망해도 그 기간이 ‘잠시’이겠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소연합니다. 마치 이제는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절망은 나라를 침략한 바빌로니아 군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몹시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본 기억으로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그린 만화를 보면, 코에서 연기가 뿜어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화를 내다’가 바로 그 그림처럼 표현합니다. ‘진노의 연기’가 ‘코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않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또 포로가 되어 끌려갈지라도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말을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2~3)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얻으시고’는 노예로 팔린 가족이나 친척을 돈을 주고 되살릴 때에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속량하사’도 비슷한 의미인데, 빚으로 인해 노예의 신분이 된 가족이나 친척을 대신해서 그 빚을 전부 갚아주고 자유인이 되게 할 때에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애굽에 값을 치르시고, 또 온갖 빛을 다 갚고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백성을 기억하셔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예루살렘을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얼마나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든지, 이제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 주의 대적이 주의 화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4, 새번역)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세웁니다. 승전국이 패전국에 깃발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대에 전쟁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우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패전국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였습니다.

플리앗이 싸움을 하러 나온 다윗을 보고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45)”.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시인의 절망적인 하소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sign)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사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도 없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을 더욱 절망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길이가 1km이다 또는 2km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한 시간 후에, 또 2 시간 후에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도 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데,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밖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많이 걸어 들어왔을지라도 그래도 되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지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현재가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11)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왜 오른손을 거두시는지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손’ 특히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입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그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회고(12~17)

시인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예루살렘의 왕궁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3~15)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는 것은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것은 이방인, 특히 애굽을 물리치셨음을 의미합니다.
-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다’는 것과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주셨다’는 것은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물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요단강을 멈추게 해 주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관자시며,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재확인하게 되자, 이전과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의 기도(18~23)

(19)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시인은 자기 백성들이 멧비둘기같이 연약한 존재와 같으니, 이방나라인 사나운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1)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땅에 대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셔서 찬송을 드린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셔서 다시 한 번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2) 하나님이어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실제로는 “주의 백성의 원통함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고, 가슴을 두드리시며 아파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혹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또 언제 끝날

지 모르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심어주신 곳이 틀림없음에도 힘드십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청정지역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호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혀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가 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며 시인은 절규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더욱 짓눌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셨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기에, 노예생활을 했던 조상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이셨으며, 요단강까지 마르게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들의 모습이 연약한 멧비둘기와 같고, 가난할 대로 가난한 상태이지만, 자신들이 원통해 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리하심을 믿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래로부터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았지만 꺾이지 않게 해주셨고, 일제강점기와 같은 치욕스러움에도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때 가난한 심령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에서도 일어서게 해주셨고, IMF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손길과 역사의 결과입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더 청정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 1.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외면하시거나, 내 삶이 다 무너진 듯한 상황을 겪은 적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2.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아주 또렷하게 역사해주신 일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지난날의 삶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여 저서 하나님만을 또렷하게 바라보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악인들 위에 계신 하나님

시편 75:1~10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이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2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3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4 내가 오만한 자들에
 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5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6 무릇 높이
 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8 여호와와 그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
 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9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
 양하며 10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표제의 의미

시편 75편 표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두둔, 헤만과 더불어

어 3대 악장이었고, 총 150편의 시편 중 12편을 지었습니다. ‘알다스헷’은 ‘폐허로 만들다, 멸하다’의 의미를 갖는 ‘다스헷’과 부정의 의미를 갖는 ‘알’이 합쳐져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다스헷’은 75편의 배경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학자)들은 75편의 배경을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걸쳐 나오는 앗수르 왕 산헤립의 남유다 침략사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75편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의 맹렬한 공격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1~5)

(1)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있는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배경은 앗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절대권력 앞에 나라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습니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내며 득세하지만 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휟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어두움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처한 현실과 환경에 갇히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공정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심판한다는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가 2절에서는 미완료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미완료로 쓰일 경우는 그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당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4~5)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심판의 대상은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빛나게 합니다. 악인들은 버릇없고 무례하며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며 사는 세상의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서서 모든 것이 자신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왜곡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만하고 악한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 (3)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셀라)
 (3, 새번역)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셀라)

때로는 우리 눈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먹은 대로 다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에 있는 풍성함은 영원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짓밟히는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오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기둥, 즉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며,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사용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며 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서고 넘어짐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6~8)

(6~8)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자신이 갖춘 조건으로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높음과 낮음을 결정하는 분은 재판

장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낮출 수 있고, 어떤 조건도 못 갖춘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은 무력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이라도 해낼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오만하고 악한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들려 있는 잔에 얼마나 많은 진노를 담았는지 이제는 그 잔이 가득차서 하나님께서 곧 쏟아내실 것인데 잔에 담겨 있는 진노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오만하고 악한 그들의 입 안으로 쏟아내실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악한 그들을 향해 공정한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말씀 앞에 시인은 공정한 심판자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이신 하나님(9~10)

(9~10) 나는 아굽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뿔, 즉 그들의 자랑거리

들을 배어 버리시고 의인들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위해 매일을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방법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2:5~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낮아짐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꺼이 낮아짐의 길을 선택할 때에,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수동적으로 밀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능동적으로 밀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능동적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나의 생명을 싱싱하고 청정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밑가지가 되십시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능동적 낮아짐으로, 능동적 밑가지 됨으로 높아지십시오. 그렇게 사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악인들의 흥왕함을 부러워했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뚝뚝거리며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무지함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들로 우리의 생명을 싱싱하고 청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 찬송의 소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인의 감사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3.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흥왕함과 성공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 사람의 인생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을 높이려 했습니까?
5. 나에게 능동적 낮아짐, 능동적 밀가지 됨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시편 76:1~12

[아삽의 시]

1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2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3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 (셀라) 4 주는 약탈한 산
 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5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
 고 잡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6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
 들었나이다 7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
 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
 려워 잠잠하였나니 9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10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
 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11 너희는 여
 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값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12 그가 고관들의 기를 꺾으시리니 그
 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오늘 읽은 시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송 업무를 맡았

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한 선견자로도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했던 것으로 여겨 집니다. 오늘 본문인 76편은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락 사이에 포함된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은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신다고 노래합니다. 4~9절은 하늘에서 공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노래합니다. 10~12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이들, 즉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국들도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인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고합니다.

시편은 주로 저술 배경과 시를 지은 때에 대해 기록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시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남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통치 기간 중 앗수르의 침략 전쟁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앗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감사 찬양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1~3)

(1~3)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 (셀라)

1절은 ‘엘로힘(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며, 1절 후반절에서는 그 이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광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나타난 알려지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돌’은 위대하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외형적인 높이나 부피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앗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 그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2절 표현된 살렘과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장막과 처소 역시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차 대구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장막과 처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족하셨기에 머무신 것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장막과 처소에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하신 일을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화살과 방패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앗수르의 상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은 완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과 싸우려 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며, 우리의 적은 앗수르처럼 완패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우리 역시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셀라’는 ‘들어올리다, 높다’라는 단어 ‘살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셀라는 성경에 74회 나옵니다. 하박국에 3회(3:3, 3:9, 3:13)를 제외하면 모두 시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셀라는 예배 때 사용하던 음악 용어이며 가성, 또는 주악의 리듬을 올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적 의미, 쉼 또는 중지의 의미, 강조의 의미,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4~9)

(4~9)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4~9절은 시온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의 ‘약탈한 산에서’의 의미는 앗수르가 여

러 나라로부터 탈취한 물품들을 산처럼 쌓아두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앗수르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최강국임을 자랑했으나 앗수르는 잠에 빠질 것이라는 표현은 패망을 의미합니다. 병거와 말도 잠들었다는 표현 역시 앗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삽은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7)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법정에서는 불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나 여건에 좌지우지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철저하게 공의롭고 완전한 판결만이 선포됨을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단행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9절에서 노래합니다. 의인에 대한 구원과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를 지닌 분이 아니시기에 앉거나 일어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을 마치 육체를 가진 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단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악인에게 죽음은 심판이지만 의인의 죽음은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할 때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배 받으실 하나님(10~12)

(10~12)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가 고관들의 기를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10)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과 형통함을 잠시 동안은 허용하시지만 언젠가는 이를 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한 도구로 악인을 쓰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래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1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경험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한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심어주신 곳에서 어린양으로 살아냄으로 어린양이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호흡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주간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신 싸움이 있으십니까?
2.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까?
3.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이웃이 생겼을 경우 주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셨습니까?
4.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심을 인지하셨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서원으로 갚으시겠습니까?
5.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9)

밤에 부른 노래

시편 77:1~20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
 짓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
 하였도다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
 도다 (셀라) 4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
 할 수 없나이다 5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 하
 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11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
 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3 하나님이며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14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사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16 하나님이며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

음도 진동하였고 17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8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1~9)

시편 77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에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은 39편, 62편과 오늘 본문 77편 등 모두 세 편이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 시대에 악장(music director)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극심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 같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입니다.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 아삽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것의 강조이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처절하다는 의미이

기도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
픍니다. 그럼에도 부르짖는 것을 멈출 수 없음은 허리가 아픈
것보다 상황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것
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가 마치 김소
월 시인의 ‘초혼’에 나오는 시구처럼, 하나님은 “불러도 주인 없
는 이름이여!”와 같으신 분이 되시고, 우리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가 되고 말 것입니다.

(2)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히브리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다름에도 히브리어성경에서도
우리말처럼 ‘나의 환난 날’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시인 아삽은
자신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
다 보면 예외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
스럽습니다. 그리고 아픍니다. 정말 많이 아픍니다. 그때는 아삽

과 같이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주일예배는 물론, 새벽기도회나 금요기도회 등을 찾아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삽은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서서 손을 들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아삽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날(히브리어로 **יום**)’이라 번역된 단어는 ‘낮’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환난에 낮에는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삽은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겪을 때에, 낮에도 주님을 찾고(기도하였고),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의 때에는 정말 낮밤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아삽은 그때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 가운데 있다’는 히브리말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른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렘31:15)’고 합니다. 자식을 갑자기 잃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환난’이라는 때에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 ‘인생의 깊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때에 낮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고,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리면, 마음에 불안했던 것이 사라지고,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이전보다는 더 가벼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 상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와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전반부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주께서 내 눈꺼풀을 잡고 계시니”입니다. 일주일동안 금식하며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일주일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인 아삽은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5~9)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실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음악가인 아삽이 밤에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버리신 것인가? 과거에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라진 것인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왜 다르게 느끼지는 것인지를 노래를 부르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개역성경에는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환난’이라는 때를 보낼 때는 ‘나의 노래’라고 할 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삶이 쉽지 않을 때에 주셨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전에 주일예배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혼자만의 부흥회’를 가질 때에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노래들’은 쉽지 않았던 삶의 순간순간의 때를 통과하게 해 준 징검다리와도 같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10~20)

아삽은 자신이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만한 고통의 상황에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면서,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하소연과 탄식은 찬송과 감사로 바뀝니다.

(10~12)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삽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행하여 주신 일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많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자인(自認)하고, 이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되뇌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신 일’, 즉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이한 일’, 즉 우리가 생각의 폭을 아무리 넓혀도, 그리고 아무리 높여도 그것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3~15) 하나님이며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아굽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도(道, 길)는 ‘거룩하다(구별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습니다. 아삽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주의 능력을 알리신 일, 주의 백성을 속량하신 일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꺼내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방법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사내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했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 강에 띄워 보내졌지만, 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왕의 딸(공주)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 사내아이는 죽임을 당해야 했던 때에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은 그저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신 것’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애굽에 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6~19) 하나님이며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때 바닷물이 하나님
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바닥까지 갈라
져,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을 삼
킨 홍해는 원상복귀가 되어서, 마치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하나님의 발자취(행하신 흔적)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고 합니다.

(20)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당
신의) 백성’이며, ‘양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
킬 만한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의 인도
하심이 필수적입니다.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
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양 떼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결코 이리를 이길 수 없지만,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 이리에게 먹히는 것 같아도, 어린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심은, 혹 그 곳이 이리가 가득한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므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목도하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 아삽이 환난의 날을 통과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영원히 끝나는 것인가? 와 같은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또한 낮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은 물론,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의 노래'를 올려 드리고, 과거에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묵상함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 우리가 미래에 '나의 환난'이라는 과정을 또 통과해야 할지라도, 그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과거가 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현장이 '이리 가운데'일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 인생에서 '나의 환난의 날'이라고 부를 만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 인생의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거나,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의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 시인 아삽은 환난의 날을 보낼 때에 옛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리 가운데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편 78:1~8

[아삽의 마스크길]

1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
니 3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라 4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
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
러서 7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
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
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78편 표제는 ‘아삽의 마스크길’입니다. “마스크길”은 교훈시입니다. “내 백성이여”로 시작하는 시편 78편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아삽의 교훈을 담은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교

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과거의 죄들을 다시 짓지 않도록 하는 경고와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위하여 시인은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들을 회상하게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 안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패러다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여전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서술적 패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범죄와 불순종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따라 기록한 시편 78편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1~8절의 큰 주제는 조상들이 전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며, 또한 이전의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역사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대(1~2)

(1~2)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시인은 백성들에게 “내 율법”, “내 입의 말”, “비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며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토라, 즉 모세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내 입의 말이나 비유는 교훈이나 잠언 등을 가리키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은 수수께끼나 비유, 난제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시를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훈이나 잠언, 수수께끼나 비유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수되어야 할 믿음과 이유(3~8)

그리고 그 가르침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대로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3~4)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기인한 바가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에 권위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할 것을 권합니다. 조상들의 교훈이 자신에게, 그리고 후대에

게 전해야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영예, 즉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일하신 여호와의 위대하신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긴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 시의 본론에 해당하는 9절 이후에 담겨져 자세히 말하고 있으며, 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하셨던 흔적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후손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은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한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심에 대한 부분만 남긴다면 그저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감사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었고, 교제를 위해서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를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즉 토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했던 증거와 법도, 곧 율법이 모두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져 지켜져야 함을 시인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언급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로 아뢰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말하는 것과 함께 듣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뢰고 함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과 함께 그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그가 원하시는 삶을 함께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고 있었기에, 시인은 이 모든 것이 후대로 전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인은 증언합니다.

(7~8)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전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역사에 함께 하시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지켜 나가야 했습니다.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완고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 심판의 길

로 나아갔던 것을 되뇌며, 조상들이 갔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시인은 신앙의 전수를 위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어져야함을 말합니다. 일방적인 신앙이 아닌, 감사와 순종이 함께 전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이제는 신앙의 전수를 생각하며, 복음의 열정, 그 구령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전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수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 우리들의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를 후손에, 그리고 이 세대에 이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배의 신앙을 지향점으로 삼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며, 나의 고리를 선배의 신앙의 연결고리에 이어 신앙이 전수되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오고 있는 누군가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믿음, 이리가 득

실거리는 가운데에 서 있는 어린양과 같지만, 그런 나를 통해 그 자리를 영원한 생명이 움트는 자리,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가 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다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이전 세대가 지금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시인은 여호와와 의 일하심과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의 순종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이 세대와 후대에 전수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음을 말씀들을 통해 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에 실패했음을 또한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을 튼튼히 하고,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2. 나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결단을 드릴지를 묵상해 봅시다.
3. 나의 삶의 결단과 함께, 믿음의 전수를 위해 우리가 드릴 노력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시다.
4. 이리와 같았던 나에게 어린양이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에게 대해 묵상해 봅시다.
5. 이제 어린양이 되어 어린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편 78:9~42

9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
 다 10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
 하며 11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
 었도다 12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
 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13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
 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14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
 으로 인도하셨으며 15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
 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
 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
 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 보라 그
 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21 그러므로 여호와께
 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 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
 노가 불타 올랐으니 22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
 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23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 그들에게 만나를 비 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

들에게 주셨나니 25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
 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6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
 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 같이 내리시고 나
 는 새를 바다의 모래 같이 내리셨도다 28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29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
 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 그러나 그들이 그들
 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역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
 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32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
 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 하나님이 그들
 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
 셧도다 34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
 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
 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 이는 하나님께 향
 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38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
 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
 지 아니하셨으니 39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을 기억하셨음이라 40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1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
 도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교훈)로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돕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조상들이 걸었던 불순종과 탐욕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시며 인간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불신앙(9~11)

본문은 에브라임 자손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9)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강성한 에브라임 자손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났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에브라임 자손들의 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미혼행세를 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불성실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이스라엘의 불신(12~22)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증거합니다.

(12~16)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냇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인은 출애굽한 뒤에 홍해바다를 가르사 마른땅같이 건너게 하신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 일, 광야에서 물을 내사 마른 목을 축이게 하신 일을 전하면서 이스라

엘 백성들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증거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에 묶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면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일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분의 크심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묵상함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마치 고라신과 벳새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불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17~22)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아굽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 본문은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감사의 간구가 아닌 탐욕과 불신앙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시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지만 고기 반찬 올려진 기름진 식탁은 못주실 걸?’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탐욕을 구하며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23~29)

그들의 탐욕과 불신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공급해주셨습니다.

(23~29)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남자 장정만 육십 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달 이상을 먹고도 남을 만한 가득한 양의 고기를 그

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는 마치 개미가 겨우내 먹을 양식을 모을 때 한 사람이 개미집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먹을 만한 고기를 주겠다고 하자 그 말을 듣고 비웃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육점에 달려가 카드 한 번만 긁으면 개미가 몇 번의 겨울을 먹고도 남은 양의 고기를 사서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생각의 테두리를 부수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휼,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30~4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거두고 저장하면서도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여주셨지만 탐욕과 불신에 대하여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30~37)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역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 먹지도 못할 만큼 탐욕스럽게 메추라기를 거두며 욕심
내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 사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이
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목도하고서도 막상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앙으로 두려워하던 광야¹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
이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듯 했지만 실상
그것은 정함이 없는 회개, 불성실한 순종에 불과했기에 그 심판
은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
다. 수없이 약속을 어겼고 또 어길 것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습
니다.

(38~42)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용암을 보면 그 뜨거운 온도가 모든 것을 녹여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무시무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용암이 바다에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용암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한 없이 넓고 깊은 바다와 만나면 이내 그 뜨거움은 식고 바다 속에 잠식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죄악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참고 또 참다 심판하셨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용암이 사랑의 바다 앞에 잠식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로 미국에는 이런 구호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멤버 펄 하버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때 당한 수치와 수모 그리고 그날의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기억함으로 한 민족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성찰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성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은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나 아주 엇드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 밝게 빛나는 별처럼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리의 소굴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도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의 피 묻은 살을 주시며 빛나는 별처럼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리와 같던 우리는 그 살을 먹고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린양들로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배부르고 흉포한 이리와 같이 살던 우리를 어린양의 보혈로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마음속 탐욕에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별벌 떠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넘어지나 엇드러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린양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두려움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내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여 봅시다.
3.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목록들을 적어보며 묵상하여 봅시다.
4.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앙을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품어주신 사랑을 묵상하여 봅시다.

그때에 그들은

시편 78:43~72

[아삽의 마스길]

43 그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44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45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46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47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48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49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50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51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52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53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54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56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빛나가서 58 자기 산당들

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59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니 60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61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62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63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64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65 그 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향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67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69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70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삽이 ‘내 백성이여’(78:1)라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 노래한 시편 78편을 묵상하며, 우리는 먼저 이것이 노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래는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불러주기를 원해서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적인 예배 때 이 시편을 낭독함으로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머릿속으로 묵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소리 내어 읽고 음을 붙여 함께 흥얼거리는 방법은 말씀이 체화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를 유념하며

함께 구절들을 읽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43~53)

(43~53) 그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노예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 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지도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42).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셨고(44; 출7:14~25), 그곳으로부터 개구리와 쇠파리 떼를 보내셨으며(45; 출8:1~15, 20~32), 그들의 토산물을 메뚜기에게 주셨고(46; 출10:1~20), 전염병(50; 출9:1~7)과

우박과 서리와 번갯불과 장자를 죽일 정도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48~51; 출9:13~35, 11:1~10).

하나님이 서커스를 하듯, 내릴 수 있는 재앙들을 모두 펼쳐 두시며 자랑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모두를 적으로 여기사, 꺼낼 수 있는 무기들을 모두 펼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타내실 것입니다(43).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44).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45). 빼앗아 주실 것입니다 (46). 죽이실 것입니다(47). 넘기실 것입니다(48). 하늘에서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이 내려올 것입니다(49).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노예처럼 착취하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며 살아가는 이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54~64)

(54~64)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빛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성소의 영역’이었다고 노래합니다. 성소의 영역,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을 쳐서 분배해주셨고 살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자다운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55).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빛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닌 ‘자기 산당’과 ‘조각한 우상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58).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은 당연히 여기면서,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든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걷고 있는 길의 끝이 ‘성소’인지, 자기 신당과 조각한 우상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지, 배반과 거짓과 빛나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동에 대해 결과를 물으실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것 같고, 미워하시는 것 같고, 떠나시는 것 같고, 적의 칼에 넘겨주시는 것 같고, 불타는 것 같고, 슬픔만 가득한 상태로 울지도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문을 노래 부르며 자녀 세대만큼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65~72)

(65~72) 그 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향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임하실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상을 숭배하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

성들을 구원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난 것과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실 것입니다(65). 대적들을 영원히 옥되게 하실 것입니다(66).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유다 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을 치던 다윗을 택하시고, 취하시며, 이끌어 내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날에도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냄 받은 하나님의 종이 구원자 되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점을 찍으실 날을 소망합니다. 아삽은 자신이 역사 어느 지점에서 있는지를 고민했고, 이를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노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아닌지 막막한 날이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한 어린양이 되사 세상을 회복시키셨으며, ‘주님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주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인맥도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노래입니다. 하루 동안 어떤 노래를 가정에 불러 줄지 작사하고 작곡하는 하루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를 볼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보냄 받은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고, 주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봅시다.
2.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봅시다.
3.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4.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심’을 통해 구원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적어봅시다.
5.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일지 적어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 79:43~13

[아삽의 시]

1 하나님이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을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4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 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 거리가 되었나이다 5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6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7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8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 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0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11 갓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2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13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시편 74편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표제에 언급된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는 아삽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이 지었고, 보다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아삽의 자손들이 지어, 조상의 이름을 붙인 시입니다. 이 시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통곡의 벽에서 계속 낭송된다고 합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1~4)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이 아예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총체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성벽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더 이상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여 예루살렘이 더 이상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1)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실체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편

재(遍在)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단 한 곳을 송곳처럼 찍어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 버렸고, 성전은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던 도시의 파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자제들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갔고, 남은 대다수는 전쟁의 광기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2~3)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주의 종들”(2)과 “주의 성도들”(3)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어 피가 물처럼 흐르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고대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죽음은 가장 참혹하고 불쌍한 죽음, 신으로부터 저주 받은 죽음으로 인식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 참혹한 일이 이웃나라에 비방거리가 됩니다.

(4)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비참한 말로를 겪은 유다는 이웃나라였던 모압과 암몬에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십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만 비방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자기 백성 삼은 여호와의 이름도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9). 고대의 전쟁은 곧 신들의 대리전이였으므로, 바빌로니아와 유다의 대결은 곧 바빌로니아의 마르둑과 유다의 여호와의 대결로 인식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유다의 패배와 멸망은 곧 여호와의 능력이 마르둑보다 떨어진다고 생각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당사자였던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5~9)

유다 백성 대다수는 지금껏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므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 없는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될 때,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선지자들만 멸망과 포로됨이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했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

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훼파되면서, 절대다수의 믿음이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쟁의 광기 앞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두고 그들은 수없이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물음 앞에서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려보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현실을 앞에 두고, 자신이 믿던 신의 존재를 쉽게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도, 그 고통의 정중앙을 걸으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이 마르둑보다 형편 없어서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질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5)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당시 이스라엘에 유행하던 속담 중 하나가, “아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렘31:29; 겔18:2)였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현 세대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 기자는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삶의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촉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인은 5절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을 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언약을 기억하고,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참고. 왕상8:46~50). 그 언약의 내용대로 지난날 조상들이 지은 죄, 자신의 죄와 합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8~9)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방금 읽은 8~9절의 특징은, 9절에 잘 나타는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인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달라 고백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에 멸망 당하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선지자들만 외쳤던 말입니다. 유다의 절대다수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방 세계 가운데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을 위한다면, 그저 우리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유다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리 떤에게 보냄 받은 어린양처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들어가 고난당하면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의 기도처럼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벽해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만, 이방나라들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는 곧 하나님께 치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보는 데서 자기 영광을 회복하시려면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구원을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11~13)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든 당한 일에 대해 이를 갈며 복수를 위해 애쓰겠지만, 79편의 시편 기자와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그 모든 원수 갚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11~12)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대단한 신앙입니다. 기존에 가졌던 강고한 틀, 세계관이 깨어져버리면, 다시 말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던 왜곡된 신앙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전쟁의 참상을 참혹하게 겪었음에도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숙의와 기도 끝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여호와와 능력 없음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들이 끌어안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와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간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둘째, 내 신
념과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셋
째, 고난당할 때, 비방하는 무리들의 복수를 주님께 맡길 수 있
는가. 넷째, 삶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믿는가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지점
에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내가 걸어갈 길로 삼
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때로는 자기 백성을 한계상황으로 몰기도 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눈을
가지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모든 일을 하며,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기를 다시 다짐해보
니다.

늘 일과 사건을 대하며,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나
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하나님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삶 살아가
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방 나라들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자행한 만행을 정리해보세요(1~4).
2. 자신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세요(9).
3. 내가 그려보지 않았던 그림대로 인생이 전개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4. 신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함께하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5. 시편 기자의 기도에서 내가 배울 점은 특히 어떤 점인가요?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1~19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듯이 맞춘 노래]

1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2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
 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 하나님이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
 시리이까 5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
 게 하셨나이다 6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 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7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 주께서 한 포
 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2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14 만군의 하나님이어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6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17 주
 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였으소서 18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 만군의 하나님 여호
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
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을 얻게 하소서(1~7)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는 ‘소산님에
덧’의 곡조로 불러야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어떤 곡조를 의미하
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산님(백합화)’이 표제로 쓰여진
시편은 오늘 시 외에 45편과 69편이 있습니다. 두 시편은 ‘백
합화(소산님)’라는 말뜻 그대로,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0편은 전혀 상반됩니다. 시
편 80편은 나라를 잃어버린 비통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옵소
서’라는 탄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슬픈 곡조 아니면, 비장함의
곡조가 더 어울립니다.

시편 80편은 비통과 비탄의 노래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앗
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주전 722년의 상황이 배경입니다. 1절
과 2절에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언급됩니다. 에브라
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유
일한 동생입니다.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얼굴
을 먼저 획하고 돌이켜, 우상을 향하고 따르고 좇았습니다. 그

로인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었습니다. 애통과 눈물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뉘우칩니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합니다.

(3~5)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80편에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3절, 7절, 19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 돌키시고(3, 19)’,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7)’라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슈브’로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얼굴빛(3)과 얼굴의 광채(7, 19)도 다른 번역이지만, 히브리어 ‘파네카(얼굴) 하에르(빛)’로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부름입니다. 3절은 ‘엘로힘(하나님이여)’이라 부르지만 7절은 ‘엘로힘 체바오트(만군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19절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야웨 엘로힘 체바오트(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그렇게 후렴구를 통해 간절함과 절박함을 점층적으로 표현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3, 7, 19 후렴구, 공동번역)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이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을 말입
니다. 얼마나 무너졌고, 망가졌으며, 스스로는 돌이킬 수도, 일
어날 힘도 없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며
가슴을 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하심을 간구합
니다.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드디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면 다른 소
망이 없음을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빛이 없습니
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방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그 어
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야, 전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베임을 당한 포도나무(8~19)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전적 망가짐과 무력함을 불에 타고 베
임을 당한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합니다.

(8)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부터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셨습니다.

(9~11)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포도나무)은 놀라운 번영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숲 속의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앗수르)로 포도나무(이스라엘) 받은 황폐해졌습니다(13).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불타고 베임을 당한 포도나무의 모습입니다(16). 완전한 절망, 무력함과 무능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암담한 처지의 이스라엘 현실을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러가지 않겠답니다(18).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뒤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주님께 등 돌리지 않으리. 그리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옵소서.”(18) 애타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포도나무 비유는 이사야서 5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이스라엘)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심으셨으나, 그 포도나무(이스라엘)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는커녕 쓸모없는 들포도가 되고 말았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사5:1~7).

(사5:7, 새번역)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여기에 독특한 언어유희가 등장합니다. ‘선한 일(미쉬파트)’을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미쉬파트)’뿐입니다. 이스라엘(극상품 포도나무)은 가난한 자들을 폭압했습니다. 잔인함을 주저하지 않았습니. 또한 ‘옳은 일(체다카)’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체아카)’뿐입니다. 이스라엘 기득권자들에게 유린당한 약자들의 한 맺힌 아우성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8세기(B.C. 740년~)에 유다에서 활동했으니, 오늘 시편 80편의 배경 시대(B.C. 722년)와 거의 동시대입니다. 아니, 이사야서의 들포도나무 비유가 시편 80편의 베임을 당한 포도나무 비유보다 앞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80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 돌이켰어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극상

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지금 너희는 들포도나무 신세구나, 너희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니?” 그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임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완전한 멸망과 절망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취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 진정어린 고백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80편은 민족적 탄식이기도 하고, 공동체적 회개이기도 합니다. 비록 때늦은 뉘우침과 뒤늦은 돌이킴이지만, 그럼에도 은혜에 대한 갈망은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 인생인 우리는 그렇게 절망을 경험해야, 그리고 실패와 무력의 자리에서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고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그 은혜의 빛을 갈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우님, 오늘 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평탄하고 무탈하십니까? 그래서 '이대호가 좋다'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묻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암담하고 절망적인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금 비로소 그 은혜의 얼굴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고 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바라고 구할 것이 주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절절하게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낱도 그 은혜 아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포도나무(이스라엘)는 의기양양합니다. 나는 백향목처럼 크고 강하다. 넝쿨이 강까지 충만하다. 하지만 베임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소서. 이 절박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시편의 '불에 타고 베임을 당한 포도나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오늘 시편의 후렴구(3, 7, 19)를 다시 한 번 천천히 읽고 묵상해보십시오.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 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3. 잠잠히 '주의 얼굴빛'을 묵상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고요히 머물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들으라
따르라

시편 81:43~16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딿에 맞춘 노래]

1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3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4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5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들을 들었나니 6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7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트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8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13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도를 따르라 14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5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절기를 지키라(1~4)

시편 81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해만, 여두둔과 더불어 세 악장 (music director)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시편은 열두 편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모두 세 편이 있는데 8편과 오늘 본문 81편, 그리고 84편입니다. ‘깃딧’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정한 노래를 연주하는 ‘악기’나 특정한 노래의 ‘리듬’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가드 풍의 행진곡 리듬일 것이라 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방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리듬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나 리듬이 된 것입니다. 마치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읊니다’는 본래 스코틀랜드의 전통 리듬(올드 랭 사인 _Auld Lang Syne)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듬이 된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 이 시편이 포도를 따는 결실기에 불렀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낭송했던 감사시 및 예배시이자 지혜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절기에 낭송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깃딧에 맞춘 노래’

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지고 있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장막절(또는 초막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10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기에, 유월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4절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보면, 야곱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사람들

변화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민족적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 특히 노예생활에서 건져 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삽은 그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라’, ‘즐거이 소리 치라’고 권면합니다. ‘기쁘게 노래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진동하다’에서 파생되어 ‘높이, 소리를 질러서 노래하다’는 뜻입니다. 또 ‘즐거이 소리치다’는 ‘놀라거나 기뻐서 탄성을 지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두 표현은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유명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에 청중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소리 질러~~” 그러면 청중들이 공연장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이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질러~~”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수의 공연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일 것입니다.

(2)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외쳐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 줍니다. 먼

저, 시인 아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읊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노래’ 또는 ‘선율’, ‘악기 소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뒤에 악기와 대조되는 표현, 즉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성경에서는 ‘시를 읊으며’를 ‘노래를 높이 부르며(raise a song, NASB, RSV 등)’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목소리로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악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목소리’입니다. 또한 시인 아삽은 ‘소고’와 ‘수금’, ‘비파’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특히 수금 앞에는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달콤한’, ‘유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수금이 아름답고 감미로운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시인 아삽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초하루에’, ‘보름에’ 그리고 ‘명절에’입니다. ‘초하루’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새 것이 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새로운 달의 첫날은 지난달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맞게 되는 첫날이므로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보름’은 문자 그대로 한 달의 가운데 날입니다. 이 때에도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예배와 주일예배 사이에 있는 ‘수요성경공부’와도 같습니다. 주일예배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주일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어느 절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절기가 되면 양 각나팔을 불어 절기를 알렸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시간이 시작됨을 알렸던 종소리와의도 같습니다.

시인 아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하고, 목소리와 여러 악기로 찬양을 해야 하고, 초하루와 보름, 명절마다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4)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야 아삽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이 지혜이자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5~16)

5-16절까지는 아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되새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호

소하고 있습니다.

(6)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림언어로 보여줍니다. 특히 ‘어깨의 짐’과 ‘광주리’가 그러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통치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분은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강제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들은 등에 지계를 지고 벽돌이나 흙을 날랐을 것이고, 여인들은 광주리에 벽돌이나 흙을 담아 이고 날랐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시켜주셨다고 합니다.

(7)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부르짖다(קרא)’는 ‘부르짖다’는 의미와 함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애굽의 노예생활)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어,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계명들을 주셨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며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

해 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8~12)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원약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러 이
러한 내용’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들으라”로
말씀하십니다. 내용의 강조와 전하는 내용에 대한 순종을 강조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내 이야기 잘 들어!”라고 말하곤 하는
데, 그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보다도 깊
이 새겨두고, 온전히 순종해야 했던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즉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
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
지 않는 것이기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이웃집에 사는 부부가 마음씨가 좋아 보인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따른다면, 부모는 참을 수가 없을 것
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사고를 자주 저지르거나,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

니다. 그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입, 감사의 입, 찬양의 입을 열기보다, 불신의 입, 원망의 입, 불만의 입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화단(꽃밭)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아주 큰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13~16)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내 말을 들어라”, “내 도를 따르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계속 될 것이지만, 순종하

면 광야에서도 기름진 밀 곡식으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단 꿀로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가 타시는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마치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태평하게만 지낼 때 속이 타는 것은 부모이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짝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위에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둔다면,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와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위에 둬므로 순종의 삶을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와 여러 악기들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향하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며, 우리가 초하루와 보름에, 그리고 매주일과 여러 절기에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강제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자유인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과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도 기름진 밀 곡식과 반석에서 탄 꿀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또 나는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2.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출애굽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가장 괴리되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2:1~8

[아삽의 시]

1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
판하시느니라 2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나
지 하려느냐 (셀라)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
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 그러나 너희는 사
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 8 하나님이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불의한 재판장들의 재판(1~4)

시편 82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인 아
삽은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이 자행되는 것을 고발하고, 영
원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
다. 아삽이 살았던 때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
대에도 재판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지만, 임금이 훌륭하다고 하여 조정(朝廷)에서부터 시골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힘의 논리가 여전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절대적이시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고 하십니다. ‘신’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통치자들’, ‘재판장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권력과 권한이 ‘신’에 비유될 만큼 크고 많음을 상징하고도 하고, 또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감사(監査)하시기 위해서 재판을 여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재판의 모습에서, 재판장은 앉아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고, 드보라 선지자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녀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서’ 계신다고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꾸민 꿈을 말할 때에,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요셉의 권위에 굴복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6:9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셀라)”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어섬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권한을 행사하여,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신들과 동일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2)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하나님께서 땅 위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이 ‘불공평한 판단(재판판결)’을 하고, ‘악인의 낮을 보는 행위’, 즉 ‘악인의 편을 드는 일’을 한다며 책망하셨습니다. 흔히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할 때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법이 없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합니다. 어차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 받은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은 언제나 공평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거나, “안면무죄, 초면유죄”, “권력무죄, 무력유죄”등과 같이 판결이 된다면 법은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낫을 보는 일_악인의 편을 드는 일’ 뒤에는 뇌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뇌물은 바르지 못한 판결, 공평하지 않은 재판의 제1원인입니다. 이는 당시의 재판장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의 원칙 아래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악인들의 죄를 축소함으로 여러 이권들을 취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과 판결은 재판장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수분_재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보물단지’와도 같았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한 재판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4)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만 지칭하지 않고, ‘허약한 사람’, ‘아래로 떨어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문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10:14)’와 ‘고아의 아버지(시68: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더불어서 ‘고아’는 보호자를 상실한 사람으로, 아주 많이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곤란한 자’는 ‘놀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에 짓눌리고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빈궁한 자’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궁핍한 자’는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인 아삽은 반복해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모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이 바르게 재판하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내용 중에, “그 나라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극빈자 등이 얼마나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느냐”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공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들의 심판(5~8)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5. 새번역)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만약 어떤 사회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기초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되거나, 높은 직위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삶과 신앙을 가꾸어 가는 길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서는 땅 위에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향해 ‘신들 gods’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롭게 재판하고, 공의롭게 행하여,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의한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보다

‘사람처럼’의 문자적인 뜻은 ‘아담처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을 뜻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중의적(重義的)으로 쓰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김으로 흠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도 흠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관의 하나’에서 ‘고관’은 거의 왕(prince)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느 순간에 호

흡이 멈추고 말았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합니다.

(8) 하나님이며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인 아삽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재판)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쥐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비롯한 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힘과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오른 쪽과 왼쪽에 앉아,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을 섬겼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에게 가난한 사람, 고아, 곤란한 사람, 빈궁한 사람, 궁핍한 사람 등,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재판하며, 공의롭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놀림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563장은 ‘예수 사

량하심음’인데, 3절 가사가 이리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을 지라도, 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 중에 실제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큰 힘을 쥐고 있다면,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과 그 자리와 그 힘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심판(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혹 나는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힘이 될 만한 무엇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조)부모입니다. 또한 작은 모임에서 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그 곳을 사람들을 섬기는 현장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 부르실 정도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곤란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과 같은 경제적으로 필절하며,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고 공평하게 재판하며, 깊이 공감하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지만, 불공평하게 기울어진 재판을 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서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 우리가 국가나 일터에서 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 위에서 우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의식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며,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낮은 곳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거기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살아오면서 가장 공평한 재판으로 기억되는 것과 가장 불공평한 재판으로 기억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 살아오면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곤란한 사람, 빈궁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었거나 외면하였던 경우는 무엇이었습니까?
3. 찬송가 563장 3절의 가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가 삶에서 적용이 되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재판장이시며, 온 세상의 소유주이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시편 83:1~18

[아삽의 시 곧 노래]

1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2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4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
이다 5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6 곧 에돔
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8 앓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9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아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0 그들은 엔돌
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11 그들의 귀인들이 오렘과 스엠편
같이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12 그
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13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4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15 주
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6 여
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
하게 하사 18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적의 연합군이 공격할 때에(1~8)

시편 83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 곧 노래’입니다. 시인 아삽이 지은 시에 곡조가 붙여져서 노래가 되어 부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다윗으로 73편을 썼고, 그 다음이 아삽인데, 12편을 기록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은 50편과 73~83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삽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의 시대까지 찬양대의 악장(music director)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8절에는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런 공격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왕은 이스라엘의 주변나라들을 정복하여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10개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던 때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 때의 일이 이 시편의 배경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했다면, 그때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조상 아삽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1) 하나님이며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히브리어성경으로는 1절에 ‘하나님이여’가 처음과 마지막에 있습니다. 국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꼭 도움의 손길을 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소서, 마시고, 마소서’라고 반복해서 부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꼭 개입해 주셔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무릇’의 원 의미는 ‘왜냐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셔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원수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복수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은 곧 주님을 향한 공격이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아야 한다고 간구합니다.

(3~4)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주님의 원수들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한 모의를 꾸미는 것은 주님께서 ‘숨겨 두신 사람’을 치려고 하며, 나라를

망하게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은 ‘주님의 보물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셔서, 숨겨 두신 것과 같은 사람들을 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자행되었던 창씨개명, 일본의 전쟁에 참전하게 하려는 징병, 조선어 사용금지, 경제수탈 등 ‘민족말살정책’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것을 전리품을 얻으려고 함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려 하기 때문이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원수로 한 마음이 되어 이스라엘을 짓누르려고 했던 나라가 어느 국가였는지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6~8) 곧 에돔³⁾의 장막과 이스마엘인⁴⁾과 모압⁵⁾과 하갈인⁶⁾이며 그발⁷⁾과 암몬⁸⁾과 아말렉⁹⁾이며 블레셋¹⁰⁾과 두로¹¹⁾ 사람이요 앗수르¹²⁾도 그들과

3) 에돔은 ‘염해(사해, 성경은 사해라고 말하지 않음) 남쪽에 위치했는데, 아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다.

4)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남동쪽의 넓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했다.

5)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한 후에, 그의 큰 딸과의 관계로 태어난 모압의 후손이다. 요단 강 동편에 살았다.

6)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로,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7) ‘그발’은 염해 동남쪽에 위치한 세일산 부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8)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과의 관계로 태어난 벤암미의 후손이다.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이 네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자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그 영향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그 차이만 있습니다.

이어 6개의 나라가 언급됩니다. 합해서 10개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입니다. 온 사방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말살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적의 연합군이 물러나기를(9~18)

시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9)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아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1) 그들의 귀인들이 오렘과 스엠펜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9)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엘리바스)과 그의 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다.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 지역에서 살았다.

10)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던 해양 세력이었다.

11)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항구도시

12) 앗수르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다. 아마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묵인해 주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9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 ‘행하다’는 ‘만들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창조하다’의 뜻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행하소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의 의미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13만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여 300명의 군인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빈항아리, 횃불을 들게 하고서, 외치기를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자 미디안 군인들 사이에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나 서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장 오렘과 스넵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까지 물리쳤습니다. 불과 300명으로 13만 5000명을 물리친 것입니다.

또 철병거(탱크)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2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그때 주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일어나 10,000명의 군인으로 철병거로 무장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시켰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 때와 같이 지금도 역사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거기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같다면, 그 목장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한, 주님의 원수들이 아무리 그 목장을 차지하려고 해도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13~16) 나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검불’은 가느다란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을 뜻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람이 불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굴러가는’이 ‘바퀴가 달린’이라는 의미입니다. 검불에 바퀴가 달리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바퀴가 달린 검불 같고, 공중을 하염없이 날아다니는 지푸라기 같이 멀리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뻗뻗한 산에 불이 붙으면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면 불을 끄는 것은 포기를 해

야 합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산에 불이 나면 잘 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결코 끌 수 없는 산불처럼 다가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17~18)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멸망을 4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① ‘수치를 당하다’는 ‘부끄러움을 당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일을 겪어서 도망가는 것이 덜 부끄러울 때 쓰는 말입니다. ② ‘놀라게 하다’는 급작스럽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③ ‘낭패를 당하다’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무안을 당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④ ‘멸망을 당하다’는 길을 잃고서 방황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끝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음은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지존자_가장 높으신 분’으로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안다면, 그 분의 보호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약 10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그것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10개의 나라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막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존자_가장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10개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시인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사사시대 기드온의 때와 드보라의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존자되심을 확인함으로 주님의 원수들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사건과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겪을 때에도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이자 과정,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순간이라도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믿지 않다가 낭패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시며,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소생되며,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이 나타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난 삶 가운데, 10개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처럼, 깊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2. 시인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사건들을 기억했습니다. 혹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서 회복되신 적이 있습니까?
3.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지존자되심을 인정함으로 삶과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시편 84:1~12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딿에 맞춘 노래]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
 나이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
 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
 소서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
 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
 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1~4)

시편 84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딿에 맞춘 노래’입니다. 표제로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모두 11편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레위의 증손자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고탕의 후손 가운데, 아론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고라와 그 자녀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온을 비롯하여 250명을 모아 선동하였습니다. 고라의 생각에 자신과 동일한 족보의 반열(같은 항렬)에 있는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고라에게 “하나님께서서는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주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며, 회중들 앞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작고 부족하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싶고, 제사장의 지위도 겸하고 싶다는 것이 시위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고라와 그를 따르던 주동자, 다단, 아비람, 온은 입을 벌린 땅에게 삼김을 당하고 말았고, 25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을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시편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시, 참회의 기도문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들의 시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함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이 더욱 그렇습니다.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지요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1절과 마지막절인 12절에 나오는데, 마치 이 시편이 ‘만군의 여호와’로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이 평안한 때가 아니라 전시(戰時)와 같은 급박한 시기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때에 고라 자손인 시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성경에는 ‘주의 장막’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성소를 복수형으로 써도 동사는 단수형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도 복수형입니다. 그럼에도 동사는 단수로 받습니다. 이것을 ‘장엄복수(pluralis majestatis)’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성막에 대한 시인의 존경심과 경외심, 애정,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국 각지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거나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 전무했던 때로 돌아가, 한동안 지방이나 해외에 있게 되었을 때, 또는 병상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야 할 때에,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떠오릅니다. 때로는 아주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여러 학자들은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와 같은 사건으로,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한동안 주의 장막을 찾지 못했다면 시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성막을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던 시인은 이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리움이 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창백해지다’이고, ‘쇠약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끝나다, 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장막에 너무 가고 싶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부르짖다’의 의미는 ‘진동하다’입니다. 온 몸이 떨릴 정도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3~4)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을 ‘주의 장막’에서 ‘여호와와의 궁정’으로, 이제는 ‘주의 제단’과 ‘주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제단’은 문자 그대로 제물을 드리는 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의 제단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나 갈 수 없지만,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치 없게 여겨졌던 참새나 제비는 주의 제단 근처에 집을 짓고서 마음대로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으니, 그것을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연예인을 TV를 통해서만 보는데, 그 강아지는 그 연예인과 한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강아지가 부러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또 매 주일 예배당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정말 큰 복입니다.

성전 순례자의 복(5~8)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입니다. 즉 주님 밖에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매, 올빼미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보다, 참새와 제비와 같이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살아갈수록 깊이 깨닫게 됩니다.

둘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이 절기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의 장막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매 주일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얻어서 복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눈물 골짜기의 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통과합니다. 중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노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눈물 골짜기의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가족들의 일로, 여러 사람들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무엇보다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 눈물의 양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에는 흘린 눈물이 샘이 몇 개만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에는 수십 개가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눈물 샘은 셀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물샘의 개수를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와 주님만 압니다.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시온의 대로가 또렷하게 보이고, 그것이 은총과 복임을 알게 됩니다.

(7~8)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아굽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눈물 골짜기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우러러 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9~12)

(9~10)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의 제단에 이른 사람은 이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폐부 깊숙이 와 닿습니다. 인생이 황혼이 깊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문득 깨닫게 됩니다.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걸,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섬길 걸’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재미도 없는 것에 왜 그렇게 목을 매었었는지 아쉽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11~12)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해’는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 ‘방패’가 적의 칼과 창, 화살의 공격을 막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자신 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23편처럼 따로 설교하지 않고, 찬찬히 읽기만 해도 가슴 깊이 와 닿고,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심으셨을지라도 그 자리가 낮아 보이고, 눈물 골짜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10).”라고 말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 곳이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의 비로 심령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심으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며,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시편 84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깊은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지나온 인생길에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어떻게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셨습니까?
3. 시인은 주님의 궁정(장막)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 일보다 낮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몇 퍼센트) 동의가 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85:1~13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7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래'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의 성격이 강한데, 오늘 시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조국의 현실을 목도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막막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곧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만 내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생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연단시키심으로 정금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실 것으로 믿었지만, 현실은 죄 가운데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언급하는 부분(1~3), 회복에 대한 애가와 기도 부분(4~7),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8)와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언급한 부분(9~1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혜(1~3)

(1~2)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아굽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힘없는 조국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힘센 정복국가의 노예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해방을 맞으리라는 기대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꿈같은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해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구나. 또한 인간의 영원한 문제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지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지기에 이 세상을 뒤엎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이든 물이든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버리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3:22~2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에 대한 애가와 기도(4~7)

(4~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바라본 조국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 있었고, 황폐한 조국처럼 그 백성의 심령 또한 피폐해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니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그라들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합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삶은 언제나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은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건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0세를 사는 인생일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하겠습니까? 현실의 문제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8)

(8)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명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결과 심판을 받았습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혹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 욕망과 정욕에 붙잡힌 소리에 내 맘을 빼앗긴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희망(9~13)

(9~11)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인은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말씀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춘다고 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가까이 있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에게 곧, 속히 임하게 될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시는 은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 ‘물질’, ‘평안’, ‘기
쁨’, ‘감사’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필요한 모든 것
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은총의 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음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13)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땅은 의의 길이며, 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을 걷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이 시편은 마무
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만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길을 걸

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의의 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이 아침에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조상의 잘못으로 후손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내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으십니까?
3.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좋지 않은 현실을 대조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길, 섬김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승전 하나님

시편 86:1~17

[다윗의 기도]

1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5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6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8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9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10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니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 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13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4 하나님이며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 그러나 주여 주는 공홀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니이다 16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

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
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기도시’입니다. 아삽의 시편에
기도시편이 많음을 볼 때 다윗의 시편이 여기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간절함과 경건(1~4)

(1)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
고 시편 86편에는 기도시답게 거의 절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주 하나님이며,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 나의 하나님이
여, 하나님이며, 주여, 여호와여”

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윗이 단순히 기계
적으로 건조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다윗
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복해 주님을 부
르고 있는 것에서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 속에 설정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곧 지금 다

윗은 자신도 모르는 신을 시의 운율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첫 번째 간구는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드린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86편을 반복해 읽다보면 다윗의 생활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영혼의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 내 영혼이 주를, 주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다윗에게 경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삶의 문제의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생활면에서 어려울 때 필요한 긴축과 절제와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형편으로 인해 영혼이 길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4)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어 다윗은 자신의 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경건을 잃지 않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씨드’인데 ‘충성스러운, 자비한’이란 의미를 담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삶의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곧 다윗은 비록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주의 말씀이 생명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매인 눈을 넘어 말씀을 보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사람의 본질적 실상인 영혼을 보존하고 기쁘게 합니다. 물질이 영혼의 구원과 기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말씀의 주님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고 기쁘게 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5~10)

(5~10)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니이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워하시는 신이시며, 우리의 기도 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증언합니다. 특히 환난 날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환난 날엔 사람의 도움을 받을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론(11~17)

(11~17)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며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니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진술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위경에서 다윗의 목숨을 건지신 분이시며, 자비와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결론짓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기승전결’, ‘시작, 전개, 전환, 결론’의 ‘기승전결’을 이용해 ‘기승전 무엇’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승전 돈, 기승전 외모, 기승전 건강, 기승전 자기자랑 등등,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결론은 마지막의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신도, 생각도, 돈도, 외모도, 건강도,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생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결론 되시는 하나님께 매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의 지혜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이십니다. 우리 도움의 결론, 응답의 결론, 구원의 결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결론되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수동태로 사는 한 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마음을 묵상해봅시다.
2. 하나님을 부르는 나의 마음은 다윗과 비교해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3.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 나는 얼마나 신뢰하는지 돌아봅시다.
4. 우리 삶의 결론은 누구이며, 그 결론 안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묵상해 봅시다.

친히 세우리라

시편 87:1~7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1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2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
 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4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
 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
 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의 영광(1~3)

시편 87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시 곧 노래’는 ‘찬송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곡조가 붙여져서 예배 때에 찬송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것이 11편 있는 데, 오늘 시편은 그중 10번째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소속

되었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고 제사장까지 역할을 하려고 하였다가, 고라 일당은 입을 벌린 땅에게 삼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들은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참회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나타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유력하게 여겨지는 두 시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여러 나라에 대한 언급 가운데, 바빌로니아는 나오는데, 아시리아(앗수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 때가 거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B.C. 612년에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 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면,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을 때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생활은 유다 자손들에게 잊힐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 그 때에 기록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는, 히스기야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라합’이라고 칭했고, 히스기야 때는

유다와 바빌로니아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왕 시대에 아시리아왕 산헤립의 공격을 이기고,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시온(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각 도시간의 거리를 쥔 때에는, 그 도시가 시작되는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 도시의 도로원표에서 도로원표까지가 도시간의 거리가 됩니다. 서울은 세종로광장 중앙이 원표지점입니다. 세종로광장 중앙에서 남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도시들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66km, 강릉까지 219km, 부산까지 456km, 광주까지 328km라고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델리 4,688km, 런던 8,871km, 예루살렘 8,084km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 서울에서 거리를 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로원표(터전)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성산_거룩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산_거룩한 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그 규모가 웅장하고 하늘과 가깝기 때문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해발고도는

820m입니다. 세상에는 그보다 더 높은 도시, 더 높은 산, 더 웅장한 곳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자연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워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주변 지역은 대부분이 광야라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2)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도

1절의 분위기가 격식을 차린 의식적인 모습이라면, 2절의 분위기는 편안한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사랑하다’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와 부부나 연인이 상대에게 깊은 관심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따뜻한 의미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본래 시온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언덕(작은 산)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궤(언약궤)를 임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고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시온은 아주 거룩한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생활 중에 자신들의 고향을 말할 때에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처음에는 언덕(작은 산)의 이름이었는데, 점차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강태공’은 본래 중국 주나라 정치인의 이름이지만, 이제는 ‘낙시꾼’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_이스라엘 전체’보다 ‘시온의 문들_예루살렘의 성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구역성경공부에서 느헤미야를 배울 때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보다 ‘시온의 성문_예루살렘 성문’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무가 듽성듬성 심긴 볼품없는 산입니다. 게다가 산 위에 있어서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데는 좋지만, 교통이 불편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아주 부족하여서 성 밖의 기혼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어서 사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역보다 시온(예루살렘)이 더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점(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이라 부릅니다. 그곳에 하나

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말한다’고 합니다. 이 두 표현이 모두 원문에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러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히스기야왕 때 지어졌다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2:2~3. 새번역)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사야 선지자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와, 시온 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국의 구원(4~7)

1~3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4~7절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그 라합과 이 라합은 자음은 동일하고, 모음은 다릅니다. 여기서의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30:7에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과 바빌로니아는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항상 짓누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제국을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더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훨씬 더 큰 사람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약하게 보여도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두로’, ‘구스’는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즉 이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 남서쪽 지중해 연안의 나라입니다. 골리앗의 나라이고,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치렀습니다.

‘두로’는 가나안 땅 북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시

돈과 더불어 페니키아 지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 여인이었는데, 페니키아지역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반복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6)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어주시지만, 민족 전체 단위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등, 단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은 없어질 것이지만, 구원은 각자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 전쟁을 치르고 승전하게 되면, 패전한 나라의 사람은 대부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때에 노예가 될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숫자를 세며 이름을 올려 등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7)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사람과 뛰어노는 사람들(춤추는 사람들 또는 피리를 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등록하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나,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라합(애굽), 바빌로니아, 블레셋, 두로, 구스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시온에서 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대한민국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형편 없고, 허물투성이인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평생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믿는 라합(애굽)과 바빌로니아에 사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쥐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블레셋, 두로, 구스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 신앙의 터전(첫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나는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과거를 복기해보세요.
2. 주변에 라합(애굽), 바빌로니아, 블레셋, 두로, 구스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려 봅시다.
3.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가기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시편 88:1~18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미할랏르안눈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
여 주소서 3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4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5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6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에 두셨사오며 7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대 (셀라) 8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간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대 9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대 여호와
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대 10 주
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행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11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
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12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잇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13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
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14 여호와여 어찌
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5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16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7 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러 썼나이다 18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1~9)

시편 88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르안낫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모두 11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도 밝혀 놓고 있는데, ‘에스라인 헤만’입니다. 다윗 시대에 헤만이 있었습니다. 여두둔, 아삽과 더불어 3대 악장 중의 1명인데, 그는 에스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에스라인 헤만이 있었는데, 그는 고라자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서, 고라 자손의 찬송시집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노래의 곡조가 ‘마할랏르안낫’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단어 앞에 작은 숫자가 있고, 아래에 보시면,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곡조는 굉장히 무겁고, 슬픈 곡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탄원시는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힘듦을 호소하다가 하나님을 직면하고서,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인이 자신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을 탄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탄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을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저녁 예배시간에 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에 들어있는 ‘욥기’와 같고, ‘예레미야애가’와 같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여”.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렬하게 기대하는 소망의 표현이 없습니다. 시인은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때로는 그저 큰 소리로, 때로는 울조리듯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문 순서대로 나열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처참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만군의 하나님!”이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먼저 부를 것 같은데,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것보다 부모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나

을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 가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으로 부르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인을 건져 올려주신 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창시절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 ‘내(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두 분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화도 제대로 나누어보지 않았는데, ‘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배려해 주신 분을 그렇게 부릅니다. 시인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2)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어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까지 당도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기 경청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야로’에서 ‘주’는 ‘낮’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루’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낮밤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매일 밤마다’ 기도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부르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드

리는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3)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이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무릇’은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재난이 많고, 자신의 생명이 스올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난은 단수(單數)로 오지 않고 복수(複數)로 온다.’는 말처럼, 시인에게 크고 작은 재난이 쉴 새 없이 다가와, 자신의 삶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4~5)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다고 합니다. ‘무덤’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공통의 무덤, 공동묘지입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히놈의 골짜기’가 공동묘지였습니다. 매장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던졌습니다. 시인은 죽어서 거기에 던져진 사람이나, 자신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7)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어가 '주'입니다. 주님(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고, 주님의 노가 자신을 짓누르고, 주님의 파도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니느웨로 가야 했던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욘2:3)”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일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는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인은 코가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웠는데, 온 몸의 뼈가 다 부러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시인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8~9)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은 크고 작은 재난으로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는 사람들로부터 소외까지 당해서, 그들에게 자신은 역겨운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은 생기와 활력의 상징인데, 그것이 사라져 기력이 쇠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시인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매일 주님을 부르며,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삶을 끝나게 해 주실 분이 주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바라는 소망(10~18)

다른 시편들에서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로 가는데, 본문은 계속된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10~12)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믿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10~12절에서는 질문형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사람들은 사이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 믿음(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5개의 질문은 모두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을 다시 소생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십시오.”를 간곡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큼니다. 죽음과 고난 등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주 크게 키워놓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15~16)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있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과 걸을 수 없었던 사람도 나오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장애를 안고 살았던 여인 등이 나옵니다. 시인도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결눈질과 그 이상의 것을 당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했던 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잠시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병(病)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고민이 되어서 하루 이틀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만성 불면증에다가, 눈만 감으면 가위눌리고, 집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7~18) 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 살아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장마가 질 때에 한강 한 중간에 빠진 듯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이 ‘종일’ 자신을 에워쌌다

는 것은 빠져야할 물이 빠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반지하나 지하에서 사는데 폭우가 쏟아져 집안에 물이 가슴까지 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을 자신에게서 다 떼어 놓으니, 흑암(어둠)만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다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즉 자신을 도와주거나 자신과 교제를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둠만 덩그러니 남아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시편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나누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처음 접합니다. 다른 시편들은 아무리 큰 고통을 호소했을 지라도 마지막은 찬양이었는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역설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빛되심을 경험하고, 그 후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깊은 어둠을 절감하는 사람은 참 빛이신 주님을 갈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빛을 구해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순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함에 자신을 엮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두려움, 상황을 아
를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사람
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
황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
는 특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나를
누르는 일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며, 하
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전개될 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
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한 날
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겪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스라이 계신 것 같이 여겨지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때,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어”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름으로, 과거에도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일로 인해서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난 인생길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가득하게 일어나며,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2. 시인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는 일, 나를 주눅 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3.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려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대대에 세우리라

시편 89:1~18

[에스라인 예단의 마스크]

1 내가 여호와와 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2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5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6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7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8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며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 9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10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흠으셨나이다 11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찬미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2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13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14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15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
로다 16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
로 높아지오리니 18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
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 언약 주심을 찬양(1~4)

시편 89편의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크일’입니다. 88편의 표제는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사 람 에단과 헤만의 시편이 나란히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은 형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전체 150편은 5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서 89편 이 제3권의 마지막입니다. 90편부터 제4권이 시작됩니다. 그런 데 89편은 52절까지 있어서 3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이 파기되는 듯이 보이는 상황, 즉 다윗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인이 하나님께 다 윳 언약을 기억하여 보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1~18절은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드 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다음 19~3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고, 그 다음 38~52절은 위기에 처한 다윗왕국을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마침내 통일을 이룹니다. 그 이후 어느날 문득 마음이 불편해졌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전쟁에서도 이기고,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언약궤)는 휘장(성막_텐트) 안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식(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견고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맞아서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시인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되새기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1)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편을 엮는다. 하지만 당시는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 국가의 존폐가 걸린 상황,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때는 탄식과 절망, 울분과 반항을 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언약(약속, 법)은 파기할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인자(헤세드)’로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시인의 기도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 되지 않았음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약속)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시인의 신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을 세우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심을 견
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
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무
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4)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갈라놓고서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의미는 그 언약을 체결하고서 만약
어길 시에는 갈라놓은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서 다윗에게 그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
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만 책임을 지시는 언약,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위 ‘불평등언약’이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 걸지라도 다 지키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언약’이었습니다.

우리도 ‘불평등언약’인 ‘은혜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편없는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5~18)

1~4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총으로 ‘다윗 언약’을 맺게 해 주신 은혜를 노래했다면, 5~18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5)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8)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며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자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권능만 있고 성실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번덕을 부리시며, 약속을 어기거나 뒤집는 것을 쉽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 권능은 없으시고, 성실하심만 있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과 견줄만한 존재가 없으며, 그 어떤 신들과 하나님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9~10)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리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흘으셨나이다

‘파도’는 문자 그대로 ‘파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파도라면 하나님께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의미합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물, 특히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사4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높은

파도와 같이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무력화됩니다. 히스기야왕 때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하룻밤에 18만 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재난이 생기는 것은 바다괴물 ‘라합’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도 깨뜨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파리, 모기에게 사마귀나 거미는 공포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는 모두 다 곤충에 불과합니다. 파리, 모기와 사마귀, 거미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3)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편 팔’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합니다. 시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다고 하십니다.

(15~17)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 빛 안에
서’ 다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공의로 인
해서’ 높아져서, 주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마다 첫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만복
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그와 언약
을 맺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행함을
요구조건으로 거셨다면, 그 언약의 수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
다. 밋세바 사건 때나, 인구조사 사건 때에 언약은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주셨습니
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언약을 맺어주시고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셨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총애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받은 자녀답게 살며,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진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가문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왕위도 영원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또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음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맺어주신 언약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음을 매일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듯이, 우리들과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2.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실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두 성품을 경험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3.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시편 88:19~37

19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도되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23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24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25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26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27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0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33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34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35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36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19~29)

어제 말씀에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불평등언약’이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인자하심을 베풀어주신 ‘은혜언약’이었습니다.

(19~20)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울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도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아미나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7명을 지나가게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젓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것이 아들의 전부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막내가 남기는 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막내는 결코 왕이 될 만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다윗이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이었고 오히려 골리앗이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완전무장을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는 적의 창과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를 든 병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칼 한 자루 없었고, 군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물매와 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날린 돌멩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점점 용사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다윗이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팔이 다윗을 더욱 힘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2~23)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의 팔과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점점 용사

가 되어감에 따라,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이기지 못하였고,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박멸(격파)하여 주시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물리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멸하다’는 단어는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때려서 버릴 때와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울 때, 금이 가거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토기를 박살낼 때에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박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삼하8:6, 14)”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4)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다

‘뿔’은 ‘힘(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윗)의 뿔이 높아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국력이 부강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준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다윗의 힘이 그렇게 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많이 배운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자랐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안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면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반문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제대로 해 준 것이 없이 그저 자녀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대했을 뿐인데,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안 해준 것 없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은 이렇게 교제합니다.

(26~29)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18: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부 1인칭으로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
윗이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고생하는 부분을 읽거
나 묵상하면 마음이 짝해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
험하는 것은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맏아들’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가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
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모든 왕
들보다 뛰어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셨
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의 영원함(30~37)

30~37절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타락할지라도 다윗과 맺은 언약
은 영원한 언약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30~32)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법’, ‘내 규례’, ‘내 율례’, ‘내 계명’은 모두 동일한 의미,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지켜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이었습니다.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1:7)”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3~35)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지라도 그 죄를 물어서 회초리로 다스리며, 매질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는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절에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리로다’, ‘아니할 것이라’며 아니하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맹세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영원한 분이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36~37)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다윗의 왕위가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이 영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해와 달이 피조물이라 언젠가는 소멸하겠지만,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와 “내일에는 내일의 해가 뜬다”는 말처럼 본문에서는 늘 존재함, 한결같음, 영원함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시편 89편은 국난의 위기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일의 본문의 ‘복선’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으니 잘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여정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도 있고, 깊은 터널을 통과하거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깊은 터널을 지날 때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를 버티게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경험했던 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교우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는 잘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설교 말씀이 모두 저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입니다. 구역식구나 특히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교우님이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시기하여 짜려보거나 초를 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안 받아 본 사람이 있나? 성경공부에서나 기도모임에서 너무 나대지 마!”와 같은 말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깊은 은혜가 후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버티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도 하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하늘과 무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도,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 고백했습니다. 또한 혹 다윗의 후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외면하여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할 것임도 약속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그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 인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해야 하거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면, 그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난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깊이 경험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며, 다윗의 뿔(힘)을 높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는 하실지라도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허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이 땅과 하늘에 잇대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시편 88:38~52

38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욱되게 하셨으며 40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41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욱을 당하나이다 42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43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44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엮으셨으며 45 그의 짧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46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가 47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48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49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가 50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52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현재의 고난에 대한 탄식(38~45)

시편 89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처럼 보였던 다윗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내용을 다루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후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이시며, 또한 고난을 거두사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38).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표현합니다. 본문의 정황상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상세하게 이루어집니다(39~41).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약속(언약)이란 한 규정 아래에 둘 이상의 개인 혹은 집단 등이 얽매는 것을 말하는데, 약속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하면 그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이 약속을 맺을 때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앞 단락에서 살펴본 본문

에서 영원할 것 같던 다윗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은 죄입니다(30~32).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를 따르지 않으며,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왕이 쓰던 왕관은 땅에 떨어지고, 성벽과 요새는 무너졌으며, 가진 것을 빼앗기고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적의 침입으로 처참하게 짓밟혀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버림으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은 주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며(17),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있었습니까(15).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복과 은혜를 원수들이 누리고 있습니다(42).

그 대적과 싸워야 할 약속의 백성들은 칼날이 둔해져서 전장을 버티지 못하고, 영광이 그쳐 수치스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당하는 패배와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허락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임하는 것을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언약을 잊어버리시고, 재앙과 심판으로 이끌어가심으로 느끼는 고통의 현실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에 대한 호소와 찬양(46~52)

이제 시인은 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46). 시인은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달라는 간구합니다. 46절부터의 내용은 보통의 비탄시와 동일한 구조와 표현법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오늘 본문의 시편에는 빠져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한 것이기도 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기에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답답한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느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 것 같은 현실,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47~48).

먼저 볼 것은 인생이란 정말 짧아 쏜살같이 지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덧없이 지나가버리는 인생에서 건져 올릴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 밖에는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에서는 인생을 한낱 바람 같다고 하였고¹³⁾, 다른 시편에서는 먼지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¹⁴⁾ 이처럼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 없는 허무로 돌아가 버릴 인생이기에 우리는 삶이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합니다.

다음에 볼 것은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13) (욥7:7)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14) (시104:29)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는 힘과 권세 앞에 어느 인간도 피해가지 못하며 세월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나약한 인생 앞에서 결국은 소멸하여 없어질 존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과 소멸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인생에서 강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돈도, 명예도, 세상적 가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6: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고후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금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역경, 비방을 기억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더 없이 소중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얻은 고난의 쓰디쓴 열매의 맛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죄와 친밀했던 모든 육적인 욕망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치욕스러울수록 다시는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며, 치욕스러운 존재도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목말라하게 됩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되새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과 간구, 슬픈 상황에 대한 비통한 토로에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능동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당장 이루어져도,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없는 풍성한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심겨주신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영원을 이어가는 삶, 영광을 온전해 드러내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고 경고망동하며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우리 이름의 가치를 잊고 죄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채워가던 우리 심령이 이 시간 정결해지게 하시옵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으로 인해 참 기쁨과 만족 안에서 살아가는 수동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생각되는(혹은 생각되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느낀 생각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47~48) 이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을지 묵상해봅시다.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시편 90:1~17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5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7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9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제4권(90~160편) 첫번째 시입니다. 시편이 모세오경과 같은 구조로 1권(1~41편)이 창세기와 비견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2권(42~72편)이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구원의 은총을, 3권(73~89편)이 레위기에 비견되는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4권(90~106편)은 민수기 해당되는 인생 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자들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들(아삽, 고라 등등)이라면, 오늘 90편의 기자는 다윗 시대보다 450년 앞선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다가 시편이 엮어질 때 같이 시편에 포함 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출애굽 현장의 산 증인이요, 광야 시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 반역의 반복되는 역사의 증언자요 목격자였던 사람, 그러나 가나안 땅 목전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모세,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인생 광야를 살아갈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1~2)

(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지,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32:10~12)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입니다. 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안에서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를 품다가 날개 위에 얹어 이동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셨으며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자신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대에” 즉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완벽한 동산을 준비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동산이라는 하나님의 품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에게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람이 거할 거처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안에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자신의 보금자리로 삼는 사람들의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33: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시편 91편이 잘 설명해줍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땅과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

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모든 것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후까지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분이 모세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할 분이십니다.

플같이 유한한 인생(3~5)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인간은 어떻습니까?

(3~5)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아침에 파랗하게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말라버립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길게 보일지 모르는 우리 인생여정이 하나님의 한마디 명령 앞에서 일장 춘몽처럼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시는 순간, 흠으로 지어진 우리 육신은 흠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하고 한 포기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님께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며 드리는 기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7~17)

이어지는 7~1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유한한 인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지를 회상하며, 주님의 진노와 책망하심 속에 살아가던 그 때를 돌아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7~11)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광야에서 셀 수 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모세의 기도에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걸어왔던 백성의 여정이 얼마나 곤하고 고생이었는데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는 고백은 평균수명 70세 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주 앞에서 성찰한 후에 이어지는 12~17절은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를 헤아려봄으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것에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 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120세까지 살다가 죽었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대하지만, 정작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살지

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헤아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본 사람이라면 함부로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미움과 질투로, 탐욕과 욕심으로 허비하며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시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물질과 재산을 위해 바둥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해보는 사람이라면 허영과 명예를 위해 살기보다는 절제와 겸손의 삶, 사랑과 이해의 삶을 살려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가늠해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13절 이하에서도 모세의 간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13~15절은 주님의 백성을 가까이하여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고 16~17절은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과 수고에 복을 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13~17)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14)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생동안
안락함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인자하심이라
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게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한글로는
인자, 자비, 자애,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번역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현대인의성경**)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14, **공동번역**)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14, **메시지**)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침에 주님께에서 부여받습니다. 하루
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동력을 주님의 인자하심, 곧 주님
의 사랑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

리를 만족케 하셔서 종일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케 하시고 온종일 그 사랑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고백과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대대로, 거할 거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 이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참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예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온종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였습니까?
2. 우리 인생여정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3.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 해볼 때 속히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모세는 아침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편 91:1~16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
 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5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
 을 네가 보리로다 9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
 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
 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
 이리라 15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
 라 하시도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1~2)

굴곡지고 고단한 현실을 산다는 것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주저 앉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외적인 환난의 위험과 내적인 갈등의 걱정애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한숨과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힘겹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성전에 나온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시편 91편입니다. 성전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이 오늘 시편에서는 ‘너’로 불려집니다. 시인은 화자(話者)로 등장하는 2절의 ‘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고백합니다. 3~13절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너’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위로합니다. 14~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전달합니다. 그렇게 ‘너’에게, 성전을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그 흔들리는 ‘너’에게, 위로와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1절은 대구법입니다. 지존자와 전능자,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역시 보호 받는 곳,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찾아온 그 한

사람, 그 ‘너’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자여, 성전에 찾아온 ‘너’여”, 이 말입니다. 그 ‘너’는 벌써 수심이 가득합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두려움 가득한, 어쩌면 피로와 질병에 눌린 나약한 얼굴의 ‘너’입니다. 그 ‘너’를 향해 시인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짧은 간증입니다.

(2) 나는 여호와의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의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피해봤고, 수없이 의뢰하고 의지했지만 결국 끝은 허망했습니다. 시인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제는 담대히 그리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을 표정이야. 괜찮아, 힘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할 분이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3~13)

3절부터는 그 피난처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설명합니다. 3~7절에는 무시무시한 단어들 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3), 심한 전염병(3), 밤에 찾아오

는 공포(5), 낮에 날아드는 화살(5),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6),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6)입니다. 여기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5)’는 ‘들짐승의 공격’이고, ‘날아드는 화살(5)’은 ‘뜨거운 태양별’이라는 단어 풀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반복법의 수사로, 그리고 그림언어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위험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부각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3~7절은 한 폭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텃이가득 흠어져 있고, 전염병과 공포가 음침하게 뒤덮히고, 화살이 날아다니는 불길한 그림 말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인생의 위험과 고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가 됩니다.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7절입니다.

(7)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앞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위험과 고통’, ‘올무와 전염병과 공포와 화살과 재앙’으로 왼쪽에서 천 명이 꼬꾸라집니다. 오른쪽에서는 만 명이 나자 빠지고 있습니다. 살벌한 ‘위험과 고통’의 쓰나미입니다. 남아나는 사람이, 견뎌내는 자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렇게 인생 모두가 겪는, ‘너’만 당한 일이 결코 아닌, 누구도 예외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애환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너’에게 위로와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 ‘위험과 고통’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야. 너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8), 너는 이 일로 죽지않아. 끝나지 않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고!” 왜 그렇습니까?

(9~10)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잖아. ‘너’
는 하나님을 너의 요새요, 의뢰하는 거처로 삼았잖아. 결단코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너’를 덮
으실거야!”(4) 그렇게 시인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개
로 덮으시고, 건지시고, 지켜주신다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
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까지 명령하여, ‘너’를 지켜주
실 거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11~12)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14~16)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14~16, 새번역)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 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겠다.

이제 ‘너’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피난처되시고, 요새요, 의뢰할 분이신 하나님을 지금처럼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지금처럼 계속 부르면 됩니다. 비록 작금의 현실과 상황은 ‘위험과 고통’일지라도, 고난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고난이 아프고 힘겨운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너’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너’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로 지금처럼 피하면 됩니다.

그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곳에 가야 진짜 숨 한번을 속 시원하게 내시겠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 곳으로 피해보고 숨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누군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고 안전합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피난처입니다. ‘위험과 고통’의 현실을 사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주눅들어있는, 지친 ‘너’를 향해 이 시

를 목놓아 외치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절히 응원하며 위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야, 성전에 찾아온 ‘너’야, ○○야, 힘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란다!”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전하고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삶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요,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한숨’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위험과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2)', 시인의 이 신앙고백을 묵상해봅시다. 그리고 한 문장의 나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해봅시다.
2. 오늘 시편의 '너'라는 단어에 나의 이름을 넣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내게 큰 울림을 주는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기록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92:1~15

[안식일의 찬송 시]

1-3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니이다 4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6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7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8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9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흠어지리이다 10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13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안식일의 찬송시(1~4)

시편 92편의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 ‘*쉬바트*’는 ‘휴식하다, 집중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보다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평상시의 삶이 내 주관과 내 마음대로 빠져 있던 삶이었다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신경을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잠을 자거나 다른 것으로 신경을 돌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리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음악을 즐긴다’는 것도 그 리듬에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은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의 핵심은 주로 Stop and Thinking, ‘멈춤 그리고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 힘들고 바쁜 삶의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고,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살아갈 때, 얻는 기쁨과 회복입니다. 또한 안식이란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일생의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취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뿘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인이 누리는 즐거움의 뿌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 둘째, 날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증언하는 것. 셋째,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기쁨에 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5~9)

내 삶이 여러 문제로 힘든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거나,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마음의 한편을 시리게 합니다. 시인도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는 7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흥왕과 9절 원수들의 악행을 경험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악인의 악행과 그들의 흥왕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과 불평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

는 신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듬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5~6)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무뚝뚝하고, 동작이 굵프고, 귀가 어두우신 것 같다고 합니다. 내가 죽겠다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급할 것 하나 없다는 듯 만청만 피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에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無爲之爲(무위지위 - 하지 않지만 하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해도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푸른 별 지구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나의 관점으로 세상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악해가고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우리 가정과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오산학교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은, 독립운동 당시 “우리가 하는 일은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이것이 분명 민족의 역량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개신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제 시대 당시,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광복을 맞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민족을 이끌어가십니다.

(8)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시인이 말한 ‘주님께 감사한 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의 행하심’은 결국 내 삶의 결실입니다. 이 결실의 근원이 바로 8절의 지존자 하나님입니다. 본 절은 시편 92편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의 악행과 여러 문제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악인은 풀 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풀은 나무보다 쉽고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결국 풀입니다. 악인은 흥왕하는 것 같지만 금방 쇠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존자이십니다. ‘지존하시다’라는 히브리어 ‘마롬’은 높은 곳 즉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그 보좌가 만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악인의 심판이 흘러나오는 장소

로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악인과 악행의 현실로 인해, 또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눈을 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6절에서처럼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9절에 흠어진다고 합니다. 흠어짐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지존자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문제와 혼란에 더욱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가 주신 은혜의 확신과 선언(10~15)

주님은 말뿐이 아닌, 내게 진정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0)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까지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뿔을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각각 왕으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10장에서의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과 같은 기름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뿔에 담긴 기름을 꺼내어 다윗의 머리에 붓

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의 용기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병은 깨집니다. 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왕국은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소뿔은 견고함과 완전함,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미약하고 연약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고, 완전하게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사람은 기름병에 속한 불안정한 은혜가 아니라, 소뿔의 담긴 기름처럼 영원하고 견고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의 인생을 금방 없어져 버릴 풀이 아닌, 12절의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견고한 나무들로 만들어주십니다.

(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예전에 이집트를 간 적이 있는데, 신전의 기둥처럼 서 있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노란 대추야자열매가 풍요롭게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추야자열매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종려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추야자열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대추야자열매의 식물학 이름은 ‘phoenix dactylifera’라고 합니다.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가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 베이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뿌리만 존재하면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불사조라 불릴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염분이 많은 땅,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이 깁니다. 한편으론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정직과 성실,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했던 것이 종려나무입니다.¹⁵⁾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백향목의 상징은 강건과 웅장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나무로 표현하면 백향목과 같습니다. 이는 병충과 해충에도 저항력이 강합니다. 변치 않는 끈은 기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현재 레바논 국기 한 가운데 백향목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 나무들처럼 세워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13)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5) (요12: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3~15)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뜰은 가정이며, 또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늘 밝은 표
정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 인생이 고달파도 감사의 마
음을 잃지 않는 사람, 받을 사랑만 헤아리지 않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허물을 사랑
으로 덮어주려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라는 나무는 진액이 넘치
게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뵈기 위해 아픔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사람을 귀
히 여기지 않는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황폐해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어둠과 부딪쳐 파란 불
꽃을 일으키는 사람들, 생기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
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설 자리가 되어주고
버틸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
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진정한 이웃의 사람, 사람의 이웃이 될 때,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약해질 찌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푸른 빛이 돌고, 푸른 진액이 넘
치는, 푸른 가정과 푸른 교회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인의 악행과 흥왕을 보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눈,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내 삶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리듬에 취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웃들에게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푸른 삶이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는 현재 어떤 고민과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2.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신 인생의 한 부분을 생각해봅시다.
4. 진액과 푸른 빛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3:1~5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2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
 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5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1~2)

시편 93편은 강력한 어조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
 한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하고도 간절한 심
 정으로 크고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왕이 일반 사람들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왕이 입은 화려한 옷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주간에 입고 다니던 곤룡포라 불리는 업무복이 있습니다. 곤룡포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비단에 왕을 상징하는 발톱이 다섯개 달린 용의 문양인 오조룡보(五爪龍補)를 금색실로 옷의 앞가슴과 등, 그리고 양쪽 어깨에 부착합니다. 또한 왕은 옥대라 불리는 허리띠를 하였는데 옥대는 비단으로 싸여져 금박판에 옥으로 만든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왕의 화려한 옷과 허리띠는 멀리서 보더라도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는 표현을 통해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권위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태초부터 이미 있었고 어느 순간 허물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무한한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과 온 우주만물 창조를 위한 존재의 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틀 안에서 만들어져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

나님의 권위는 견고하고, 무한하며,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크고 영원무궁하시리이다(3~5)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에는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3~4)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본문에서 큰 물, 많은 물 소리, 큰 파도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는 큰 물은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 혹은 무시무시한 쓰나미보다도 노아 시대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린 홍수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에 몰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 있었던 홍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큰 위협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무리 어떤 큰 물이 쏟아붓고, 큰 배를 다 집어 삼킬만한 엄청난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시인은 알았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홍수가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과 동물은 방주 안에서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로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거나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인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격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며, 그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껏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은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깊이 공감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멀게 느껴져 주님의 증거가 확실하게 믿

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하나님을 자기 사고의 틀에 가두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죽음을 허락하심, 실패케 하심, 병에 걸리게 하심,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세계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 십자가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무기력하게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빌:10~11)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철저히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사람

의 이웃, 이웃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모든 우주만물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다시 한 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큰 물결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술수가 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무궁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3. 아무리 큰 물과 큰 파도가 다가와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더 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위협하는 큰 물과 큰 파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묵상해 봅시다.
4.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시편 94:1~23

1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빛을 비추어 주소서 2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4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7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8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10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2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5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16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17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 내 속에 근

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20 울레를 빙
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21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2 여호와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설
교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십시다”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설
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아멘을 외칠 것입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경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선뜻 아멘으로 답하기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면밀히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기 보다는 나의 중심
과 이기심, 당면한 현실을 기준 삼아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
다. 물론 시대가 악하고 그 안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
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
구해야 할 믿음의 삶,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
이 어떤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
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다면
생각만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다는 우리의 현주
소를 조금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1~7)

오늘 94편의 시인도 정의보다는 불의가 앞서고, 의인보다는 악인이 많으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뻔뻔함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약한 사람들마저 짓밟는 악인들이 평평거리며 사는 시대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악인들, 천상천하유아독존을 모토 삼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악인들, 물질과 권력을 앞세워 타인을 희생시켜가며 자신의 삶을 기쁨지게 하는 악인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지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의 언행과 삶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7)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아굽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인은 3절에서 ‘악인이 언제까지’를 두 번 말함으로 악인들로 인한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실패를 맛봤습니다. 손해를 맛봤습니다. 한계를 맛봤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도 놓여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에 나온 영화 ‘친구’의 명대

사인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처럼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닥에 눌린 것도 모자라 땅을 파서 그 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찍어 누릅니다.

언젠가부터 갑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는 갑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음에도 괜히 화가 나고, 누군가 나서서 어떻게 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불의한 일을 내가 직접 혹은 우리 가족이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못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며, 탄식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게 된다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분노와 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인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1~2)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인은 그의 삶에 분노와 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며 불의와 불법과 거짓으로 세상을

들었다 났다하는 악인들에게, 약한 자와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악인들에게 마땅한 벌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악행을 범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 시인의 눈에 비춰진 악한 세상, 시인의 눈에 비춰진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비춰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는 대물림되고, 가진 자는 더 인정받고, 적당한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작 신경 써야 할 자신의 실체에는 무관심한 채로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하고, 잔머리와 요령이 있으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오히려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착하게 살면 안 되는 7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스맨으로 오해를 받는다. 두 번째 굶은일은 내가 도맡게 된다. 세 번째 상대는 나한테 더욱 무례해진다. 네 번째 멸뺨했던 성격이 의기소침해진다. 다섯 번째 자존감이 낮아져 공부와 일에 영향을 준다. 여섯 번째 혼자 참다가 마음의 병이 생긴다. 일곱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한다. 물론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가지 이유 중에 상당수에 공감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8~23)

이처럼 무언가 잘못되고 꼬여버린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정직하게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도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악인들은 불법과 불의와 거짓으로 더 좋은 것을 자신의 삶에 가득가득 채우는데 반해, 믿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채우기는커녕 늘 손해보고 밟히고 찢기는 바닥 인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8-23절을 통해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함으로 비록 세상은 악하고 그 안에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소상히 밝힙니다. 8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4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9)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만일 9절 말씀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한다면,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정말정말 커서 우리가 소곤소곤하는 말들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눈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숨어서 하는 것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숨기고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거짓

과 불의함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도 그에 따른 의인의 고난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악인들의 악행은 만천하에 낱알이 드러날 것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13~14)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되 그들과 같이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한결같은 악행으로 인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환난의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면 그 길은 다른 길이 됩니다. 여전히 환난은 지속되지만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 위로를 경험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킬 듯 일던 큰 풍랑이 예수님으로 인해 잠잠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등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살림의 상태

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도움을 주십니다.

(17~18)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우리의 삶이 깊은 바다 속에 잠기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면 제발 누가 좀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의 임계점 앞에서 해답을 못 찾고 있을 때에 매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시121:3~8)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악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칠 수 있지만 다시 앞으로 한 발짝 내 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도와주고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들로부터 당한 신실한 사람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가해자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십니다.

(23)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인들은 그들의 거짓과 불의로 쌓은 부와 권력을 사용하여 악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능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이고, 믿음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주술일 뿐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떠들어 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23절에서 되돌리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바아슈ׁב*’는 문법상 미완료시제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들 자신에게 반드시 되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가장 옳게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악

인들의 삶에 마땅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 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세상이 악한 것 맞습니다. 그 안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참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사십시다. 선악을 가장 옳게 분별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평안을 찾으십시다. 그래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다면 하늘을 보며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십시다.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설령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웃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십시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악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믿음은 커녕 악인들과 같이 불의와 불법과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렇게 쌓은 것들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전지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악행 그대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왜곡되고 빼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리를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사에 믿음을 앞세우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누군가 먼저 나의 이웃이 되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사람의 어찌함 때문에 이웃되어주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누군가의 이웃되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악인들이 지속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악인들로 인한 고통, 피해, 마음의 병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떠셨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 8절 이하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가지로 정리해봅시다.
5.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1~11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
 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는 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 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
 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 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
 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
 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1~5)

이 시의 히브리 원문에는 표제가 없지만, 구역 성경 헬라어 번
 역본인 70인역에는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이라는 뜻의 표제

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이 시가 다윗을 통해 계시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 수 있습니다.

(1~2)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라고 시작하며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2절에 ‘그 앞에 나아가며’, 6절에 ‘오라’라고 하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순서는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노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본래 어떤 세력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 해방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8절 이하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바로 출애굽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

석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드문 팔레스틴에서는 반석이 중요한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 그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건짐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몸을 돌려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옛 자아는 죽고, 옛 옷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5)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왕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기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6~11)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습니까?

(8~9)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므리바는 ‘다투다’, 맛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은 목이 말랐습니다. 데리고 온 가축도 목이 말랐습니다. 요즘 같이 폭염이 심할 때는 밖에 나가서 몇 분만 걸어도 더워서 시원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마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왜 장막을 쳤습니까? 누가 장막을 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애굽에 도착해서 급하게 광야에 장막을 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출 16:1).” 애굽에서 나온 지 7주째가 되는 날이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였습니다. 7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되기 위한 신병교육대는 6주간 훈련을 합니다. 6주동안 치열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6주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더디게 갑니다. 언제 6주가 끝나나 싶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면 민간인의 모습은 없어지고 군인다운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군기가 충만한 모습으로 자대에 배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주라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7주 전으로 돌아가서 기억해보다면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열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출애굽을 하면서는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내내 함께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7주를 보냈는데, 이쯤 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함을 넘어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투었음이었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출17:7).”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들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바라봤기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못

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앞뒤가 막혀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해 온대로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7)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굽혀’, 그리고 ‘무릎을 꿇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되시기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되시고 우리는 양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입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말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입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지금 당장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전심’입니다. ‘열심’이 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전심’은 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혹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갈 것을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진정한 이웃의 사람,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구원하시고 반석이 되셨습니다. 나는 삶에서 반석되신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리바와 맛사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회개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4. 다윗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노래

시편 96:1~13

[그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르안돗에 맞춘 노래]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4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5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7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10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노래(1~6)

시편 전체 150편 중, 표제가 있는 시편은 116편이고, 표제가 없는 시편은 34편입니다. 본문은 표제가 없는 34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제가 없어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표제로, 저자와 배경으로 유력한 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성경과 내용의 일치를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이하에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이어진 다윗의 감사 찬송내용의 일부는 오늘 본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23~33절만을 놓고 보면,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주요한 번역본으로 간주되는 곳 기록된 표제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본문의 표제어를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오늘 본문을 다윗의 시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에 허락하신 성경에는 분명 아무런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제가 기록된 시편이 전체의 시편의 약 80%이고, 표제가 기록되지 않는 시편이 전체 시편의 약 20%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본문의 표제를 기록하지 않으신 것인지를 염두하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a)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스갯소리 중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웃어넘기기에 앞서, 이런 말이 왜 생겼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은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문장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으로 빵을...” 서술어를 듣지 못하면 먹었다는 것인지, 먹지 못했다는 것인지, 사주었다는 것인지,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히브리어는 한글과 달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순으로 문장을 구성합니다. 주어는 경우에 따라서 문장의 가장 앞에 기록되기도 하고, 과감히 생략되기도 합니다. 본문을 원어의 어순으로 재배열(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a) 노래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호와께 온 땅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두 절에서 ‘노래하라 여호와께’ 라는 명령이 가장 앞에서 세 번 반복되어 운율을 이끌어 냅니다. 이를 한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 땅이여 새 노래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노래의 내용(방법)을 기록합니다.

(2b~3)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의 체험들과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자는 마땅히 노래해야 할 이유들을 이어서 노래합니다.

(4~6)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고대 근동에는 바알, 아세라, 마르둑 등과 같은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들을 가리켜 ‘사람이 금이나 은을 부어 만든 우상’(사2:20)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든 신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하늘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만들어낸 우상들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노래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아가 ‘성소에 있도다’는 그 위대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삶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림(7~13)

(7~8a)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1~2a절을 살펴봤던 것 같이 원어의 어순을 따라 재배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8a)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만국의 족속들이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에게(:여호와께) 영광을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두 절에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는 명령이 세 번 반복되어 운율을 이끌어 냅니다. 이를 한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이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로 번역된 원어 ‘*הָבִי*’의 원형은 ‘*אֶהָבֵב*’입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된 우리가 완전하신 창조주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넘겨주거나 더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אֶהָבֵב*는 ‘인정하다’, ‘돌리다’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새번역) 만방의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돌릴지어다’는 1, 2절에서 반복된 ‘찬양하여라’와 같은 의

미로 해석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선포를 시작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포괄하는 온 땅이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절에서는 온 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찬양을 돌려야 할 방법과 그 내용들을 노래합니다

(8b~9)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드리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매주일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0)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기자는 본 절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독자들을 온 땅과 만민이라 총칭하며 그들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이제 본절 이후로는 독자들의 시선을 초점을 잃은 온 땅과 만민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선포함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이는 새번역 성경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새번역)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에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통치는 안전하고, 그의 판결의 공의로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조세계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11~12)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도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간결하고 역동적인 표현이 마치 피조물들이 한대 어우러져 펼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피조물들은 기쁨과 즐거움,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13)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되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이 판치는 피조 세계를 결코 팔짱끼고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정하신 때가 되면 직접 오셔서 의와 진실로 더없이 공정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필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노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역시 합당한 일입니다.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노랫말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노랫말을 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서로 맞지 않아 흩어져버린 로마의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과 같이 열린 귀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삶으로도 듣는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노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쫓아 헛된 우상을 노래하던 삶에서 돌이켜, 공의와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존귀, 위엄, 권능, 공평 등을 새 노래의 삶으로 불러(증거)내야 합니다.

‘No Title’ 예술작품에 제목이나 저자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목이 무엇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독자의 생각과 느낌이 제목이 될 수 있고 또 독자가 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본 저자의 무언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봐도 본문에는 표제가 없

습니다. 어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듣는 모든 이들이, 부르는 모든 이들이 시편의 기자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이 제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새 노래가 불러질 것이고, 우리의 노래를 통해 새 노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어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첫사람이 미혹됨 같이 저희 역시 창조의 목적을 잃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세주를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에 들렸던 새 노래가 삶에서도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결심합니다.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다른 누군가에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 삶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주변의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3. 우상들과 창조주 여호와를 비교하며 누구를 노래해야 할지 묵상하여 봅시다.
4.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시편 97:1~12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2 구름과 흑암이 그를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3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 산들이 여호와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6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7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8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9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1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1~6)

총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며,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도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표제에 나타난 이름으로 분류하면 73편이나 쓴 다윗과 12

편을 쓴 아삽, 11편을 쓴 고라자손, 2편을 쓴 솔로몬, 1편을 쓴 모세, 에스라인 헤만, 에스라인 아삽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내용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 나의 산성이시로다(시18:1~2)”로 시작되는 시편 18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지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시51:1~2)”로 시작되는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회개)시’입니다.

한편 시편 중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신정시(神政詩)’라고 하는데, 시편에는 모두 1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4권(90~106편)에 8편이나 있습니다. 93편과 95~101편까지 7편이 그러합니다. 특히 95~100편은 신정시의 대표적인 시편들입니다.

시편 95편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면, 시편 96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다스리심을 노래합니다. 즉 시편 95편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면,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마치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누구신지, 왜 창조하셨는지, 태초가 언제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찬찬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땅’은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허다한 섬’은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반대편까지, 세상에서 가장 먼 곳까지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다스림은 즐거움과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이내 괴로움과 고통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이나 통치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이나 모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와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아주 뚜렷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와 내 삶에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의 상황과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셨나니’나 ‘여호와께서 다스리셨었나니’라고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현재형으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지 않으신 때가 없었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시는 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구분점인, 기원전과 기원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로 표현합니다. B.C.는 ‘Before Christ_그리스도 이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후는 A.C._After Christ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A.D.라고 합니다. A.D.는 라틴어 Anno Domini(아노 도미니)의 약자인데, 문자적인 뜻은 ‘주님의 시대 속에(in the Year of the Lord)’ 또는 ‘우리 주님의 시대 속에(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물론 온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생애 전부가 주님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든,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이든 모두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인생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2~4) 구름과 흑암이 그를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구름이 주님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흑암(짙은 어두움)이 주님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오심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또한 짙은 어두움이 하나님을 둘러쌌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얽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합니다. ‘의(공평)’는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이라면, ‘공평(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과 행하심에 바르지 않으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구가 ‘불’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돔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향을 비같이 내려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시대에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로 분

향을 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또 장차 종말에도 악인들을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 뿐만이 아니라 번개를 비롯한 모든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5~6)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초)처럼 녹았다고 합니다. 산이 녹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 내리는 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진도 10의 지진으로 인해서 산 자체가 붕괴되는 모습을 그린 것일 수도 있고, 산사태나 눈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토사나 눈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산을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상징으로 보아서, 그 기세가 등등하여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기억해 보면,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던 목자 모세와 세상 권력의 1인자였던 바로왕의 권세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진 힘이 어린 아이가 쌓은 모래성과 같았다면, 바로왕의 힘은 거대한 산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와 같이 작고 연약하게 보이는 동물을 통해서 바로왕의 권세를 녹여 버리시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시대에는 기드온의 군대 300명에게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000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시리아 산헤립의 군대 18만 명이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사다라는 말이 저절로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로(7~12)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의 올바름을 노래한 시인의 말입니다.

(7)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할지이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끝까지 외면하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특히 ‘허무한 것들’이 히브리어로 ‘엘릴림’인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엘로힘’을 섬기며 그 분을 자랑해야 하는데, 자기가 만들고, 무가치한 ‘엘릴림’을 섬기고 자랑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언제나 2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대용품’이든지입니다. ‘하나님 대용품’은 자기 자신과, 물질, 권력, 명예, 등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용품을 목적 삼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던가 하고,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에게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8~9)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의 올바름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과 ‘유다’입니다. ‘시온’은 본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작은 산(언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곳에 한동안 언약궤를 두었었기 때문에 사

람들은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겼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다’도 본래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는 남쪽 나라를 의미했고,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며 ‘지존하신 분’으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표현할 때에,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VIP’라고 말합니다. 그 VIP를 무한대로 높이면 하나님이 됩니다.

(1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미워해야하는 것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영혼(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손에서도 끄집어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을 가장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방법은,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악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11~12)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데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동일한 의미이고,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는 말도 동일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졌음을 뜻합니다. 11절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빛은 의인에게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입니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뿌려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나타나는 ‘허무한 것들(엘릴림)’을 좇지 않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엘로힘)’을 추구하는 삶과 의롭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어

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삶으로 듣고,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때에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세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구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에 동화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삶으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창조하셨을지라도 내 삶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부인할 수 없고,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고개를 가로저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과 허무한 것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대용품을 목적으로 삼다가 수치를 당하거나 낭패를 겪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오늘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온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그러하신 사실을 깊이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2.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엘로힘)이 아니면, 허무한 것들(엘릴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체험한 유익이나 은혜가 있습니까? 반대로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허무함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3. 의인(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왕이신 여호와 앞에

시편 98:1~9

[시]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다 2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7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9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1~3)

오늘 본문 표제는 ‘시’, 한 글자입니다. 표제로는 뜬금없게 여겨 집니다. 시편의 내용이 산문이라면 몰라도, 시편이 이미 시인데, 표제로 쓸 필요가 없는 말이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마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찬양하다’, ‘연주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튕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수금’이나 ‘비파’와 같은 현악기를 손으로 타며, 불렀던 노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95-100편까지 6편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정시(神政詩)’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사역과 장래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시편 96편에서도 동일하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찬양하라)”는 시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새로 만들어진 노래를 배워서 불러야 한다는 의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일 사용하는 찬송가는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노래일 것입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만들어진지 5년 이내가 될까요? 아니면 3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이면 될까요? 만약 노래 가사는 만들어진지 1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멜로디가 10년 전의 것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의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새 노래’의 의미가 ‘새로 만들어진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나 날짜와 연결되

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받은 백성이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았는데,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지, 그 때 혼자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중얼거렸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에 불렀던 찬양과 그 이후에 불렀던 찬양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또한 새 노래는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혼자만의 부흥회’를 가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복음성가집을 여기저기 뒤적여가며 찬양을 부릅니다. 기타를 치며 부를 때도 있고, 무반주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 때에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중고등학교생 시절이나, 대학생 시절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새 노래’가 아니라 완전히 ‘오래된 노래’, ‘헌 노래’입니다. 가요로 하면 ‘7080 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을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

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의 말씀이 저절로 고백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언제 만들어졌을 지라도 언제나 ‘새 노래’입니다.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사이에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인 ‘키_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과 팔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기이한 일’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베푸신 구원’을 떠올리면,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 일하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 수십 만 명이 한꺼번에 떠나가는 것은 바로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형 장비 포클레인에서부터 작은 장비 톱, 망치까지 전부다 구비되어 있었는데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는 수십만 명이 일하는 공장의 기계가 하

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보다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기이한 일’이었고, ‘사람의 손과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팔’이 행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에, 단번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각각의 재앙은 다신교 국가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깨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내려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진 물을 통해서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구원과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잊을 수도 없고, 잊힐 수도 없는 최고, 최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인자’는 ‘언약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약과 법은 체결되고, 시행되고 나면, 그 계약과 법이 소멸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실’은 ‘진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흔히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사람,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은 ‘진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다 이기적입니다. 늘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영원한 진국이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악기로 찬양 그리고 만물이 찬양(4~9)

4-9절은 악기로 드리는 찬양, 만물이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중

거하고 있습니다.

(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4절을 원문의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온 땅아,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합성을 터트려라.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찬양하여라”입니다.

이 한 문장에 명령형 동사가 4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리를 지르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만큼 기쁨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명령문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쉬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뻐십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았고, 자리에서 폴짝 뛰면, 하늘에 닿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5~6)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금’은 10줄로 된 당시의 대표 현악기로 오늘날의 하프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팔’은 금속(은)으로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나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불곤 했습니다. ‘호각’은 숫양의 뿔로 만들었는데, ‘양각나팔’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 나팔은 금관악기, 호각은 관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소리를 질러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왕’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그 왕’이신 오직 한분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결국은 후회와 수치만 남습니다.

(7~8)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자연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인들이 그랜드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이구아수 폭포 등의 장관을 보면 “야 멋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오, 하나님!”이라 말하며,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후렴구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

양하네’가 저절로 고백됩니다.

(9)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높이 찬양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판단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적인 선율이며, 영원한 선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십시오. 그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 분량만큼 성숙하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 매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해 주신 은총을 잊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인자와 영원한 진국, 성실로 인함임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날이 하루 가까워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우리로 인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우리의 우리 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인자와 성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성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3.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1~9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2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3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4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5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6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만민의 통치자 하나님(1~3)

오늘 본문은 시편 95-100편까지, 6편의 신정시(神政詩) 모음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편 97편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에 잇댄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비교적 오래 살지만, 유한한 것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다’는 동사로 표현을 해보면, 태어나기 전에는 ‘살게 될 것이다’이고, 출생부터 죽음까지는 ‘살다’이고, 죽음이 후에는 ‘살았다’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50년이든, 100년이든, 혹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살다’의 기간은 영원에 견주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존재하시다’이고, 창조 이후 지금까지도 ‘존재하시다’이고, 앞으로 영원까지 ‘존재하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역시 현재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견과 반려묘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속이 상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들에게 얘기를 한다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멍뚱멍뚱 쳐다볼 뿐입니다.

반려견과 반려묘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

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의 오묘함에 놀라곤 합니다.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사람도 떨고, 땅도 흔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벌레와 같은(보다 못한 존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로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은 아스라이 계신 듯 생각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결)작품’으로 고백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사라지고, 죄를 과거보다는 훨씬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경외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

해지고, 삶이 정결해 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라고 말하며 경외의 하나님을, 8절에서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시니다”라며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2)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언덕)의 이름이고,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고, 다윗이 정복하고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언약궤를 임시로 두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나타내는 지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시온’은 기가 막힌, 오랫동안 순종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분배 받은 지역에서의 작은 전쟁은 지파별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 시온이 있는 땅은 다윗 때까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지역을 차지하는 장면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결코 자신들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한 말로 조롱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

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다윗 사이에는 최소한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온은 차지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차지하지 못했고, 여러 사사들과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릴 때에도 차지하지 못했고, 사울왕이 다스릴 때에도 차지하지 못해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암울한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고, 언약궤를 둠으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께는 위대하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4~5)

4~5절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합니다.

(4)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아굽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정의’와 ‘공의’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심에 어그러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정의는 올바른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굽은 판결을 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롭지 않으신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먹을 것을 나누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에서의 ‘공의’는 ‘공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평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천평칭의 한쪽에 고기 1kg을 올려놓으면,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고기 1kg을 올려놓아, 저울의 가로장이 평행할 때에 ‘공평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빈부귀천, 남녀노소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평하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모습입니다.

(5)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인은 공의와 정의, 공평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한 용어입니다. 학창시절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모두가 ‘내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이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분만 ‘내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발등상’은 ‘발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발등상’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6~9)

1~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과 세상 만민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강조했다면, 6~9절은 개개인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이름을 예로 들어가면서 자기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면, 거기에서 균립하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잘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찬송가 563장 3절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입니다. 이 분이 우

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6)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론과 모세, 사무엘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 전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중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은 그 목회자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

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8)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용할 용서입니다.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락의 마지막은 같은 후렴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와 구별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은 우리도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도, 앞으로도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낮고 낮은 우리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2.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3.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최근에 용서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시편 100:1~5

[감사의 시]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
 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어다 5 여호와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환희의 찬양(1~2)

오늘 본문은 시편 95-100편까지, 6편의 신정시(神政詩) 모음
 중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시편입니다. 표제가 ‘감사의 시’입니
 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감사 예배 때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
 집니다. 특히 2절의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의 ‘그의 문
 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등의 표현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
 과하고, 성전 뜰을 지날 때에 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단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루아)’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 특히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가수의 공연장에서, 가수가 청중들의 감정을 북돋우고, 공연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질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공연장이 떠나갈 듯이, 또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루아)’는 당시의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할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를 때에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凱旋)할 때에도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에는 복싱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세계 챔피언이 되어 돌아온다든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귀국했을 때든지,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종합 우승을 하고 돌아올 때에 거리에서 오픈카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 때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온 땅’이라고 합니다. ‘온 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2) 기쁨으로 여호와의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이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불과 5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명령형 동사가 7개나 있습니다. 2절에도 ‘섬겨라’와 ‘나아가라’ 등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의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섬기다’는 ‘예배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에 쓰던 단어였습니다. 섬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고달픔입니다. 그것도 노예와 같은 섬김이라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기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이 말 씀은 하나님을 섬겨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만약 누가 시켰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섬기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만약 미국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서 “굉장히 감사합니다(Thank you, very much!).”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미국 사람은 “It’s my pleasure(내 기쁨입니다. 또는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도울 때, 우리 속에서 정말 기쁨이 생

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음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겨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지겠습니까?

제가 혼자서 부흥회를 가질 때에 거의 빠지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리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더욱 더 섬기고 싶어지고,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인은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그(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라’입니다. 마치 축구국가대표선수가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카메라 앞으로 나아가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때에 밋밋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소리를 질러 기쁨을 표현하며 나아가입니다.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3~5)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즉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4가지로 말합니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이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는 그저 원숭이를 조상으로 둔 진화의 산물일 뿐이고, 그냥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속에 사는 인생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유행가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제목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머리에서 자라는 머리카락도 희지 않게 하거나 빠지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우리 각자가 지금의 모습대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공부도 훨씬 많이 했을 것이고, 소유도 지금보다 최소한 10배는 넘게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우리 각자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물결 따라 휩쓸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나그네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합니다. 양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발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뿔이 있기는 하지만

뒤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보호됨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사냥개라고 한다면, 사냥개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양을 지키려고 해도, 사자 떼가 몰려오면 지켜줄 수 없습니다. 또 목자가 사자라고 할지라도 코뿔소 떼나 코끼리 떼가 몰려오면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되새긴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하나님의 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고, 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송축하다’는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다’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실 때는 ‘복을 주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우리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 앞에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선하다’는 의미는 ‘악함과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움, 좋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의 사랑’,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이며, ‘성실하심’은 ‘신실하심’, ‘진실하심’으로 ‘영원한 진국 같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특별하게 대해주

시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최고, 최상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삶을 얹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것이며, 오늘은 우리가 삶으로 쓰는 시편 100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한 순간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도 잊지 않아 거기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시편 100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뻐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내 삶이 시편으로 기록된다면, 무엇이라 쓰고 싶습니까? 한두 문장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